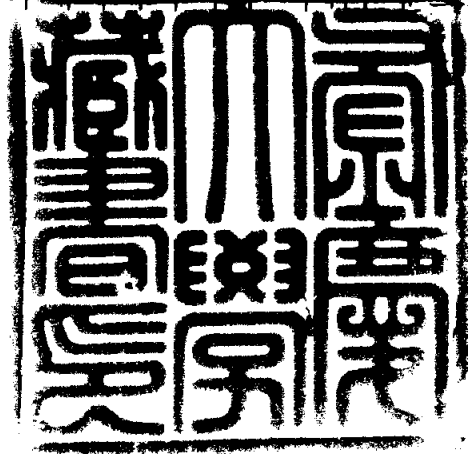


국제지역학석사 학위논문

중국 고소득층의 실태와 성격

지도교수 이 중 희

이 논문을 국제지역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4년 8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국제지역학과

김 명 숙

김명숙의 국제지역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4년 8월 31일

주 심 정치학박사 김 진 기



위 원 사회학박사 이 중 희



위 원 문 학 박 사 김 창 경



목 차

제 1장 서론	1
제 1절 연구 목적 및 의의	1
제 2절 선행연구 검토	3
제 3절 연구 방법 및 구성	6
 제 2장 고소득층의 정의 및 실태	8
제 1절 고소득층과 관련된 용어.....	8
제 2절 고소득층의 정의	9
제 3절 고소득층의 실태	14
1. 자산규모	15
2. 소득수준	23
3. 교육수준	28
4. 소비형태	30
5. 소득세.....	34
6. 사회적 인식 및 지위.....	34
 제 3장 고소득층의 형성 배경.....	38
제 1절 정책적 요인.....	38
1. 선부론.....	38
2. 소유제의 다양화.....	41
3. 세수문제.....	49
제 2절 사회·환경적 요인.....	51
1. 자본 및 지식요인.....	51

2. 권력 및 인간관계요인.....	52
3. 기회요인.....	54
제 4장 고소득층의 형성 경로 및 형성 과정.....	56
제 1절 고소득층의 형성 경로.....	56
1. 합법적 경로.....	58
2. 반합법적 경로.....	58
3. 불법적 경로.....	60
제 2절 고소득층의 형성 과정	61
1. 시장화의 초기.....	62
2. 생산 영역의 시장화.....	64
3. 금융영역의 시장화.....	66
4. 지식과 기술의 시장화.....	67
5. 국유자산의 사영화	68
제 5장 고소득층의 주요 구성.....	70
제 1절 사영기업주계층.....	70
1. 사영기업주계층의 출현.....	70
2. 사영기업주계층의 형성 과정 및 발전 메커니즘.....	71
3. 사영기업주계층의 특징 및 현황.....	72
제 2절 전문경영자계층.....	77
1. 전문경영자계층의 출현.....	77
2. 전문경영자계층의 특징.....	78
3. 연봉제	82
제 3절 전문기술자계층.....	84

1. 전문기술자계층의 특징	84
2. 전문기술자계층의 현황	85
 제 6장 결론	87
 참고문헌	91

표 목 차

<표 2-1> 광조우, 상하이, 베이징 도시주민의 평균 소득 비교.....	12
<표 2-2> 전문가 및 기관별 고소득자의 기준	13
<표 2-3> 중국 가정의 빈부구조	17
<표 2-4> 베이징시 각 소득집단이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18
<표 2-5> 도시주민, 농촌주민, 도시·농촌주민 개인소득의 지니계수	21
<표 2-6> 고소득자가 집중되어 있는 직업의 평균 월 소득(2000년)	27
<표 2-7> 사영기업주 교육정도.....	29
<표 2-8> 중국의 주민들의 소득계층의 부인 의류 구입가격.....	31
<표 2-9> 사영기업주 가족 소비구조(1996년).....	32
<표 2-10> 승용차 구입에 대한 인식	32
<표 2-11> 고소득 가정의 투자 상황	33
<표 2-12> 각종 불법수입이 수입 분배차이에 미치는 영향	35
<표 3-1> 개혁 이후 개체기업의 발전	43
<표 3-2> 소유제별 고용인원 비중 추세(1978~2002년)	46
<표 3-3> 소유제별 기업수와 생산총액	46
<표 3-4> 지양수성 난징시의 학력별 연 임금(2003년)	52
<표 4-1> 베이징시 개체호의 출신성분(1989년)	63
<표 4-2> 상하이시 개체호의 출신성분(1989년).....	64
<표 5-1> 각 소유제기업의 연평균 증가율(1990~1999년)	72
<표 5-2> 중국 사영기업 발전(1989~2000년)	73

<표 5-3> 전국 사영기업 발전 현황(1989~2000년)	75
<표 5-4> 사회경제발전에 대한 사영기업주 계층의 공헌	76
<표 5-5> 기업경영자 교육수준 변화(1993~1996년)	79
<표 5-6> 기업경영자의 이전에 종사했던 직업	80
<표 5-7> 기업경영자의 정치면모	81
<표 5-8> 국유기사업 단위 산업별 전문기술직	86

The Actual Conditions and Characteristics of High-Income Class in China

Myoung-Sook Kim

*Division of International Area Studies,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Since China's reformation and policy of openness, its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aspects have changed. China has especially achieved dramatic economic growth by pushing ahead with its market economy system. This reformation, openness policy, and consistent economic development have caused rapid social changes.

Most interestingly, the diversification of property ownership has separated the right of ownership and management and caused earning differentials in the inner part of Chinese society. As a result, a new class -- the "High-Income Class" -- has appeared in this Socialist state. The High-Income Class has not emerged by chance but has been promoted by the theoretical backing of *Xianfulun* and the non-state owned economy. It has also been brought about by a national policy which promotes individual wealth and, eventually, public wealth. However, if the present High-Income Class rapidly increases in number and size, it will provoke various social problems in China.

This thesis (1) defines the concept of the High-Income Class by analyzing its major appearances and actual status and (2) determines

how the High-Income Class is positioned within the dimension of income by investigating its members' financial standing. After evaluating these gradation features and the degree of legitimacy in the accumulation of capital (wealth) in China, the thesis considers prospects and solutions regarding the High-Income Class.

Key words: China's reformation and policy of openness, High-Income Class, Xianfulun, China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 목적 및 의의

1978년 제 11기 3중전회를 기점으로 대대적인 개혁·개방 정책이 추진되면서 중국은 연평균 9.3%의 성장률을 보이며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였다. 경제개혁을 통해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정착되면서, 소유제의 다양화·분배방식의 상호작용·다양한 가치의 공존·상이한 생활방식과 기회의 부여는, 중국 사회 내부에 다층적인 계층관계와 구조의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시장 경쟁 속에서 개인의 능력에 따라 소득격차가 점점 더 심화되었다. 그리고 사유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자영업이 급속히 발전하여 고소득자들이 속출하기 시작했다.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중국 인민들의 평균소득과 생활수준이 향상되었다. 하지만 기회의 분배와 재산의 획득에 있어 개인별, 집단별 차이가 확대되어져 경제적 불평등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또한 사회 각 계층의 구성원들은 이익획득과 분배, 행위양식, 심리적 인지 등의 방면에서 점차로 다양성을 표출했다. 이는 바로 사회 내에 새로운 계층을 형성해 내는 계기를 제공했다(김도희 1998:220).

중국 내부의 이러한 변화는 중국의 안정적인 사회구조를 새로운 형태로 변화시켰으며, 새로운 계층의 출현은 중국 사회 내부에 다양한 계층구조를 만들어 냈다. 새로운 계층구조의 변화 중 가장 큰 특징은 양대 기본계급이던 노동자와 농민이 최소 수혜계층으로 전락한 사실이다. 반면 개혁·개방 이후 등장한 사영기업주, 전문경영인, 전문기술자, 개체호 계층

이 최대 수혜계층으로 대두됐다. 개혁 과정 속에서 최대 수혜계층으로 떠오른 계층들은 정책적, 이론적 보호막 아래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이러한 부의 축적은 고소득층을 형성했고, 빠른 속도로 확대되었다. 이처럼 새로운 계층의 형성은 사회주의를 유지하려는 구심력과 이를 벗어나려는 원심력간의 긴장을 확대시켰다.

계층분화의 정도에 따라 다원화된 사회계층은 시장의 원리에 기초한 이익의 재분배를 집단적으로 요구했다. 국가는 이 때문에 다양한 계층간의 소득균형을 모색하는데 있어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계층의 다양화, 특히 고소득층의 등장은 성장과 분배라는 딜레마의 해결을 국가에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는 지속적이고 안정된 사회발전의 전제로서 이 문제점을 해결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개혁·개방 이후 중국에서의 양극분화를 통해 형성된 고소득층의 현황과 형성과정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고소득층의 성격 및 부의 축적과정과 주요 구성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그들의 위치를 진단하고 향후 전망을 살펴보는 것이 본 논문의 연구목적이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 사회의 중요한 변화 요인인 소유제의 다양화와 산업구조의 변화는 직업의 이동 및 소득격차의 심화를 유발시켰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국사회가 경제개혁이라는 새로운 정책 도입으로 인해 발생한 계층구조의 변화, 특별히 고소득층의 발생을 규명하는데 있어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중국 고소득층의 전체수, 소유하고 있는 재부의 규모 및 인원의 기본구성을 파악하는 것은 고소득층을 연구하고 중국 경제, 사회발전에 미친 영향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또한 현재 국내에는 중국 고소득층에 관한 현황과 주요 구성에 관한 논문이나 자료가 양적으로도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중국사회에서 소비형태를 주도하고 있는 고소득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제 2절 선행 연구 검토

현재 중국의 계층분화나 고소득층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는 다른 연구주제와 비교하면 그 연구 성과는 빈약하다. 개혁·개방 이후 계층분화에 대한 연구는 사회학자와 경제학자 또는 연구소 단위로 이루어졌다. 이 연구들의 대부분은 시장경제와 발전, 소유제 개혁과 관련해 새롭게 발생하거나 분할되는 계층의 분화현상을 추적하는데 주력했다.

먼저, 중국에서의 계층에 관한 기존연구는 그 초점에 따라 4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중국의 계층분화와 구조에 초점을 맞춘 연구이다. 대표적인 연구로 閻志民(2002), 陸學藝(2002), 李 拓(2002), 李 炯(2000), 肖文濤(2001), 朱光磊(1998)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¹⁾ 閻志民(2002)는 중국의 계층분화와 더불어 계층분화 모순에 대한 분석과 특별히 빈부차이의 국제비교를 통해 중국 사회 내부에서의 빈부격차의 심각성을 제시하고 있다. 李 拓(2002)은 중국 선부계층의 형성배경 및 과정, 단계별 특징과 선부계층의 속성과 발전추세를 설명하고 있다. 李 炯(2000)은 수입의 양극분화에

1) ① 閻志民. 2002. 『中國現階段階級階層研究』 ② 陸學藝(編). 2002. 『當代中國社會階層研究報告』 ③ 李 拓. 2002. 『和諧與衝突: 新時期中國階級階層結構問題研究』 ④ 李 炯. 2000. 『中國現階段個人收入差距分析』 ⑤ 肖文濤. 2001. 『中國中間階層的現狀與未來發展』 ⑥ 朱光磊. 1998. 『當代中國社會各階層分析』

따른 계층분화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비교가 주를 이루고 있다. 肖文濤(2001)의 경우 중간계층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朱光磊(1998)은 중국 사회에 분화된 각 계층의 설명과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둘째, 빈부격차나 중국 사회문제에 관한 연구이다. 李強(2000)²⁾은 빈부격차, 소득격차 및 사회계층의 이익격차에 초점을 맞춰 연구했다. 陸建華(2002)³⁾는 요즘 대두되고 있는 중국의 사회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 중 수입 분배의 문제를 통해 고소득층의 발생원인과 사회 불평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셋째, 계층의 구조변화 및 지역별 계층 구조와 중산계층에 관한 연구이다. 陸學藝(2002)의 연구는 중국내 계층의 구조 변화를 세부적으로 분석했고, 계층 분화에 따른 구성과 지역별 계층 구조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許海峰(2003)은 현재 중국에서 대두되고 있는 중산계층을 연구했다.⁴⁾ 그리고 중국의 중산계층과 거부계층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하고 있어 고소득층의 정의를 내리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넷째, 고소득층의 구성에 관한 연구이다. 楊宜勇(1997)⁵⁾은 고소득층을 이루고 있는 구성을 세부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부의 축적과정 및 고소득층의 소비형태에 대해 연구했다.

다음으로, 한국에서의 관련 연구는 그 연구의 범주에 따라 두 그룹으로

2) 李 强. 2000. 『社會分層與貧富差別』

3) 陸建華. 2002. 『中國社會問題報告』

4) 許海峰. 2003. 『你中產了嗎?』

5) 楊宜勇. 1997. 『公平與效率:當代中國的收入分配問題』

분류될 수 있다. 첫째, 중국 계층 및 사영기업에 관한 연구이다. 김채윤·장경섭(1996)⁶⁾은 중국 계층과 관련해 각 계층별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서석홍(1994), 유희문(1998), 김재철(2003) 등은 중국 사영기업에 관한 연구로, 개혁·개방 이후 경제발전과 함께 형성된 사영기업의 발전 과정과 정치적 위치에 대해 연구했다.⁷⁾

둘째, 빈부격차·도시 불평등·부유층에 관한 연구이다. 김도희(1998, 2002)는 중국의 계층분화와 빈부 격차를 다루었고, 이로 인한 중국 사회의 통합 위기에 대해 연구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신계층의 성격에 대해 연구한 바 있다.⁸⁾ 부유계층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는 이희옥(1996), 도시지역의 불평등에 대해 연구한 학자는 이희옥(1999), 신철균(1996) 등이 있다.⁹⁾ 한국에서는 이희옥(1996, 1999)의 연구가 중국 부유계층에 관해 가장 주목할 만한 연구이다. 아직까지 이희옥의 연구와 같이 부유계층에 관해 세부적으로 다루어진 연구는 없다.

전체적으로 중국 내에서 이루어진 연구 이외에 한국의 기존연구는 주로 지역간 빈부격차의 추세분석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근래에 들어서는 사영기업과 중간계층에 관한 연구가 점차 활기를 띠고 있다. 중국의 고소득층(부유층)에 관한 연구(이희옥 1996)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고소득층에

6) 김채윤·장경섭. 1996. 「변혁기 사회주의와 계급·계층」

7) ① 서석홍. 1994. “1978년以後의 中國 私營經濟에 관한 研究” ② 유희문. 1998. “중국사영경제의 발전과 구조적 특징” 「현대중국연구 1집」 ③ 김재철. 2003. “사영기업의 등장과 정치 변화”

8) 김도희. 2002. “계층분화와 빈부격차 그리고 사회통합의 위기”; 1998. “중국 신계층과 사회 집단의 성격 및 사회적 역할에 관한 연구”

9) ① 이희옥. 1996. “중국의 계층분화와 ‘중국적 부유계층’등장의 성격과 의미”; 1999. “중국의 사회적 불평등과 사회조직의 정치시스템 변용의 상관성” ② 신철균. 1996. “상해의 주택문제를 통해서 본 도시 불평등”

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이희옥(1996, 1999) 연구의 경우 중국 고소득층의 현황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하며 부의 축적과정 및 주요 구성에 대한 부분들이 미흡한 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보충하여 중국 고소득층에 대한 연구를 전개하고자 한다.

제 3절 연구방법 및 구성

본 논문은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소유제와 사회제도 변화, 사회자원의 지배능력을 중심으로 고소득층의 형성배경과 요인을 파악하고, 이와 동시에 고소득층의 현황과 성격 및 형성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고소득층의 직업범주는 사회상층(社會上層)¹⁰⁾에 속하는 사영기업주와 전문경영자(經理人員), 전문기술직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고소득층이 중국 사회 내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와 고소득층의 경제적 상황, 유형, 합법정도를 파악하고 향후 전망은 어떠한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된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이다. 따라서 기존 문헌에 나타난

10) 본 논문은 중국 사회과학원 사회학연구소에서 발행한 「當代中國社會階層研究報告」에서 분류한 五大社會經濟等級과 十大階層을 바탕으로 한다. 五大社會經濟等級은 상층, 중상층, 중중층, 중하층, 저층으로 나뉘어 진다. 상층에는 고위지도급 간부, 대기업 경영자, 대형 사영기업주, 고급 전문기술인이 포함된다. 중상층에는 중간지도급 간부, 대기업중간 간부, 중소기업 경영자, 중간 전문기술인, 중간 규모의 기업주가 속한다. 중중층에는 초급 전문기술인, 소기업주, 사무직, 개체호, 농업경영자 등이 있다. 중하층에는 개체노동자, 일반상업·서비스업 종사자, 노동자, 농민 등이 속하며 저층에는 농업노동자, 실업·반실업자가 속한다. 十大階層에는 국가·사회관리자계층, 전문경영자 계층, 사영기업주계층, 전문기술인계층, 사무직 계층, 개체공상호계층, 상업·서비스업 종사자계층, 노동자계층, 농업노동자계층, 실업·반실업계층으로 나뉜다(陸學藝 2002:9).

자료를 가지고 고소득층의 현황과 성격을 살펴볼 것이다. 국내와 중국에서 출판된 단행본, 논문, 연구보고서 및 일간지를 중심으로 논문을 작성할 것이며, 중국의 문헌들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또한 경험적 분석을 위해 중국의 공식 통계 자료인 『中國統計年鑑』과 중국국가통계국(中國國家統計局)¹¹⁾의 자료를 활용할 것이다. 또한 기타 자료들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고자 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은 본 논문의 연구 목적과 선행연구를 통한 자료 분석, 연구방법을 제시한다. 2장에서는 고소득층의 개념과 범주화 및 자산규모, 직업과 소득·교육수준, 소비형태, 소득세와 고소득층의 사회적 인식과 지위에 관해 이해하고자 한다. 3장은 고소득층의 형성 배경 및 원인을 살펴본다. 개혁·개방 정책과 비국유기업 및 소유제의 다양화에 대해 기술함으로써 고소득층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4장은 부의 형성에 있어 합법의 정도와 단계적인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5장은 사영기업주, 전문경영자, 전문기술직 계층으로 세분화하여 각 계층들의 특징과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6장에서는 고소득층의 향후 전망과 결론으로 이 논문을 맺고자 한다.

11) <http://www.stats.gov.cn>

제 2장 고소득층의 정의 및 실태

제 1절 고소득층과 관련된 용어

고소득층의 현황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앞서 먼저, 중국에서 사용하는 고소득층 관련 용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소득층이라는 용어는 현재 중국에서 ‘부자’, ‘부유층’ 등의 의미와 같은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부유층의 의미를 통해 고소득층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리라 본다.

부자(富人)의 용어로 1980년대의 만원호(萬元戶)가 있다. 1980년대는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기 시작한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개인간의 소득차가 그다지 크지 않았다. 그래서 1980년대 중국 사회에서 만원호(萬元戶)는 엄청난 부자로 인식되어 부자의 대명사로 사용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대관(大款)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래서 만원호(萬元戶)를 더 이상 부자로 여지기 않았고, 최저 10만 위안 이상인 ‘대관’을 부자라고 여겼다.¹²⁾

고소득층에 관한 용어와 부자의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기관들에서조차 그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부자의 실제 범주는 더욱 모호해지고 있다. 현재 중국 정부 당국은 부유층을 공식적으로 ‘고소득집단(高收入群體)’ 혹은 ‘고소득자(高收入個人)’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許海峰 2003:46-47).

12) 그 외에 부유층에 관한 용어로는 ‘고상한 인사(高尚人士)’, ‘화이트칼라’, ‘부유계층’ 등이 있다. 근래에 와서는 ‘中產’이라는 용어로 바뀌어 사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부유층 혹은 부자 등 중국에서 사용되었던 용어보다 더욱 사회과학적 개념인 고소득집단 즉 고소득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제 2절 고소득층의 정의¹³⁾

현재 중국에는 고소득층에 관한 뚜렷한 기준과 정의가 없다. 따라서 고소득층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집단 구성원과 소유한 재부의 가변성으로 인하여 정확하게 고소득층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다.¹⁴⁾ 따라서 정부 기관이나 연구소, 전문가 및 각 지역별 기준을 종합하여 고소득층의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13) 현재 중국 고소득층의 규모는 얼마나 큰가라는 이러한 질문은 명확히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왜냐하면 첫째, 고소득층의 기준은 무엇인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고소득층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가와 같은 물음에 중국은 아직까지 통일된 답변이 없는 상태이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고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선진국에서는 보편적인 계층에 속하기 때문이다. 둘째, 중국의 고소득층의 형성 경로와 수단이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공개적인 경로로 부를 획득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지하'경로를 통해 고소득층으로 진입했기 때문이다. 셋째, 통계적으로 볼 때 개인 소득세가 징수되고 있지만 징수제도가 불완전하여 탈세현상의 정도가 심각하다. 아직까지 고소득층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나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할 수 없지만, 현재 중국 내에 고소득층이 형성되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14) 중국 내에서도 고소득층에 관한 연구는 중간계층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현재 중국 내 중산계층에 관한 연구를 통해 중국 고소득층의 규모와 조건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陸學藝(2002)가 밝힌 중국 중간계층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지적능력을 위주로 하는 생계수단에 종사해야 하며, 1인당 최저 연평균 수입이 25,000~35,000위안은 되어야 하며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소비생활을 하고 환경보호, 공익 활동 등 수양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蕭文濤(2001)은 중간계층의 연 평균 소득을 1~10만 위안으로 잡고 있다. 1999년 말 중간계층의 비중은 취업인구 70,586만 명 가운데 15%정도이며 그 수는 1억 588만 명 이상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 중국 중간계층은 이미 현대 사회 발전을 추진하고, 사회소비를 주도하고 있으며 사회 형세를 안정시킬 뿐 아니라 사회 규범 및 가치관을 정형화 하는 등 사회의 주체적인 역량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첫째, 李 拓(2002)은 선부계층의 의미로 고소득층을 정의했다. 李 拓(2002)은 상대적인 의미에서 선부계층을 개혁·개방 초기 온포(溫飽), 소강(小康) 상태를 지난 계층으로 연 평균 소득이 4,000달러 이상인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제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선부계층은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선부계층의 절대적인 의미에서 李 拓(2002)은 선부계층을 거대한 개인 자산을 소유하고, 소득의 수준과 생활수준이 확실히 높은 대다수의 고소득 집단이라고 정의한다. 현재 중국의 상황을 볼 때 고소득층의 연 평균 소득은 4,000달러 이상이 비교적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베이징 사회과학원의 조사에 의한 정의이다. 베이징 신부유층의 사회정향 분석에 따르면 ‘개인이 얼마정도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야지 부유층이라 부를 수 있는가?’라는 설문조사에서 25.4%가 100만 위안 이상, 39.7%가 100만 위안, 11.1%가 50만 위안, 11.2%는 10만 위안 및 10만 위안 이하라고 답했다(許海峰 2003:208).

셋째, 국가통계국(2000/07)의 정의이다. 국가통계국은 고소득조사에서 베이징, 상하이, 톈진, 충칭(重慶), 저장(浙江), 광둥, 윈난(云南), 산시(陝西), 후베이(湖北), 랴오닝(遼寧) 10개 도시의 고소득가정 9,956가구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 나타난 중국의 ‘부자기준’은 1가구당 연평균 소득이 3만 위안 이상이고, 분양주택이나 개인의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분양주택이나 승용차가 없다 하더라도 1가구당 연평균 소득이 3만 위안 이상이면 고소득가정이 된다. 또한 소득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은 문화(교육)수준이며 더 이상 지역, 직업과 재직연수가 소득의 중요한 요인이 아니라고 밝혔다.

넷째, 세무국의 정의이다. 세무국의 고소득자 기준은 국가통계국과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세무국에서 정하고 있는 '고소득자'의 기준은 연 소득이 6만 위안 이상이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고소득자의 월 소득이나 연 소득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다섯째, 전문가들의 정의이다. 전문가들은 고소득액의 한계를 2가지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하나는 베이징시 통계국이 공포한 1인당 연평균 임금(2000년 15,600위안)의 10배 이상을 고소득의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다. 이 기준에 의하면 연소득 15만 위안 이상을 고소득자로 하고 있다. 두 번째는 개인소득세와 월급소득의 비용을 제외한 기준을 1,000위안으로 잡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1,000위안을 개인의 월 최저 생활비로 잡아 개인의 연평균 최저 생활비 기준을 12,000위안으로 정하는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최저 생활비가 12,000위안의 10배 이상인 사람이 고소득자이다(許海峰 2003:48). 세무국에서 정한 고소득자의 연봉은 반드시 12~15만 위안 이상이 되어야 한다.

여섯째, 정부기관이나 연구소 외에 각 지역별 정의이다. 1999년 샤먼(廈門)시의 규정에 따르면 '맞벌이 가정의 연평균 소득이 1998년 1인당 평균 임금수준의 6배 이상(廈門 1998년 1인당 평균임금수준은 1.28만 위안)인 7.68만 위안이다. 4년 동안의 소득으로 건물 면적 80평방미터의 중·고급 분양주택을 구매할 수 있으면 고소득가정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정부가 규정한 1998년의 최저임금의 표준을 계산하여 맞벌이 가정의 소득이 9,120위안 이하이면 최저소득 가정이 된다(李 炯 2000:162).

일곱째, 베이징시의 고소득자에 관한 정의이다. 베이징의 경우 가장 먼저

고소득자의 기준을 정하였다. 현재 베이징 세무국(2001)에서는 베이징의 중점적인 납세자의 기준을 연 소득 10만 위안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베이징은 연 소득이 10만 위안 이상인 사람을 고소득자라고 규정한다. 오늘날 베이징에 연 소득이 10만 위안 이상인 고소득자가 3만 명 정도 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준에 근거하면 베이징에는 적어도 3만 명 정도의 부자가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광범위하게 사용된 적이 없으며, 세무국 내부에서도 이와 같은 '기준'이 상당한 논쟁 거리가 되고 있다.

국가통계국(2001년)의 공식적인 보고에 의하면 광저우, 상하이, 베이징 3개 도시 주민의 1인당 월 평균 소득은 이미 만 위안을 넘어섰다.

<표 2-1> 광저우, 상하이, 베이징 도시주민의 평균 소득 비교

(단위: 위안)

소득 \ 도시	광저우	상하이	베이징
1인당 월평균 소득	14,694	12,883	11,578
1인당 연평균 소득	117,552	103,064	92,624

출처: 許海峰(2003:49)에서 재구성

<표 2-1>에서 알 수 있듯이 도시 주민의 1인당 연 평균 소득 수준이 10만 위안 이상이 되어야지 '고소득자'라고 할 수 있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와 같은 대도시들은 고소득자의 기준을 이미 연 소득 10만 위안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許海峰 2003:49).

여덟째, 《希望月報》가 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¹⁵⁾, 43%의 응답자

가 부자의 기준으로 가족자산이 100만 위안이라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20%는 50만 위안, 응답자의 90%는 10만 위안이라고 답했다. 또한 조사결과 응답자의 80%가 부자는 전화, 에어컨, VCD를, 응답자의 73%는 컴퓨터, 주택의 재산권을, 50% 이상은 개인 자동차, 40%는 VTR, 27%는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陸建華 2002:302). 이러한 각 기준들을 종합하면 <표 2-2>와 같다.

<표 2-2> 전문가 및 기관별 고소득자의 기준

발표 연도	전문가 및 기관	범주	소득 수준
1999	샤먼(廈門)시	고소득 가정	맞벌이 가정의 임금 소득이 7.68만 위안 이상
2000	국가통계국	부자	1가구당 연평균 소득이 3만 위안 이상
2000	세무국	고소득 집단	1인당 연평균 소득이 6만 위안 이상
2001	전문가	고소득액	연봉이 12-15만 위안 이상
2001	국가통계국	광조우·상하이·베이징 3개 도시의 고소득자	연평균 소득이 10만 위안 이상
2002	李拓	선부계층	연평균 소득이 4,000달러 이상
2003	베이징사회과학원 (베이징신부유층의 사회정향분석)	부유층의 자산	설문조사 응답자의 65.1%가 100만 위안 이상이라고 답함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 내에서도 고소득층에 관한 개념과 구체적인 자산 및 소득의 규모가 정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지역이

15) 각 항목마다 1항목의 선택으로 한정하지 않음

광범위하고 지역 간의 각종 차이(정치, 경제, 문화)가 심해 고소득자의 절대표준을 정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다.

상술한 정의들을 통해 필자는 전문가와 국가통계국(대도시)의 기준이 중국의 경제성장과 실제 생활을 가장 적절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 안에서도 각각의 개인차이가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국가통계국(대도시 조사)의 기준을 중심으로 중국 고소득층을 정의하고자 한다. 또한 점차 중국 고소득층의 사회적 인식과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본 논문에서는 소득을 기준으로 고소득층을 정의할 것이다.

중국 대도시(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의 기준에 의거해 고소득층의 소득 기준은 2001년을 기준으로 1인당 연평균 소득을 최저 10만 위안 이상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물론 이 범주 안에는 어느 정도의 中上層이 포함되어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제 3절 고소득층의 실태

학자들마다 고소득층의 현황을 약간 상이한 각도에서 파악하고 있다. 許海峰(2003)은 고소득층의 교육수준과 개체 소득 및 자산 규모를 위주로 하고 있다. 孫秀(2002)는 고소득층의 직업별 현황과 지니계수를 통해, 李拓(2002)은 고소득층의 소비형태와 소유하고 있는 자본으로 설명하고 있다. 楊宜勇(1997)은 자산의 규모로 고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율과 직업별 수

입 및 자본의 양으로 고소득층의 현황을 정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고소득층의 현황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연구 내용을 토대로 하되 위에서 살펴본 기존 연구보다 더욱 심도 있게 현황을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고소득층의 소득세와 사회적 인식 및 지위의 내용을 첨가하여 중국 고소득층의 현황에 대해 살펴 볼 것이다.

1. 자산규모

전국 상위 20%인 고소득가구와 하위 20%인 최저소득가구의 1인당 평균 소득차이는 1990년 2.9배에서 1994년에는 4.2배로 확대되었다. 또한 1994년 국가통계국 조사에 의하면 연 소득이 10만 위안 이상의 고소득 가정은 조사가구 총수의 1%인 70만 가구였다. 가구당 금융자산은 28만 위안이며 주로 사영기업가, 합자기업 기업주, 유명한 연출가, 유명화가, 작가, 부분 주식제기업 경영자 등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 이래 개인의 자산소득이 급속히 늘어나 1993년에는 1985년에 비해 개인의 자산소득이 12.2배 증가하여 매년 52.3%의 증가율을 보였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증가율은 자산소득에 있어 불균형의 확대를 보여준다. 금융자산(저축예금, 각종 유가증권과 현금을 포함)의 경우 1994년 도시 가정의 1인당 평균 금융자산은 8,064위안이고 총액은 1.8만억 위안에 달했다. 이와 같은 자산의 불균형은 자산소득의 불균형을 초래했다.

연소득이 5,000위안 이하의 빈곤형 가정의 1인당 평균 수준은 평균치의 11.3%에 불과하다. 반면 연소득이 10만 위안 이상의 고소득형 가정의 1인당 평균 수준은 평균치의 10.5배이고 빈곤형 가정의 93.3배이다. 전체가구

의 40%를 차지하는 빈곤·온포형 가정이 소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도시 주민 금융자산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1인당 평균 이자수입은 61위안이다. 반면, 전체가구 총수의 9%를 차지하고 있는 고소득형 가정은 전체 금융자산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1인당 연평균 이자소득이 5,700위안에 이른다. 이것은 빈곤·온포형 가정 이자소득의 92배에 이르는 것이다(楊宜勇 1997:38-44).

일반적인 소득 차이에서 비교해 보면, 전체 중국인을 5분법으로 나눈 최저층의 20%는 전체소득의 4%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최상위의 20%는 전체소득의 50%가 넘는 자산을 소유한다. 또한 전체 중국인을 10분법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최상위의 10%는 전체소득의 33% 차지한다. 최상위의 1%는 중국 거부층(부유층의 부유층)에 속하고 이들은 천만, 억만 부호들이다(許海峰 2003:208). 이와 같은 소득차이로 발생한 중국의 빈부구조는 <표 2-3>과 같다.

<표 2-3> 중국 가정의 빈부구조

구분	가구당 연평균소득(위안)	가구당 금융자산(위안)	전체가구 중 비중(%)	구성
빈곤형	5,000 이하	3,000	4	경영상태가 불량한 기업의 직공, 생산이 중단, 계속을 반복하는 기업의 직공으로서 타직장을 찾고 있는 노동자, 부분적으로 휴직이나 퇴직한 가정, 취업인구가 적은 소가정으로 부양가족이 많은 가정
온포형	5,000-10,000	9,000	34	내륙지역 중소도시의 일반주민, 기타수입이 없는 월급노동자
소강형	10,000-30,000	28,000	55	대도시, 중도시나 연해지역의 대부분의 가정
부유형	30,000-100,000	87,000	6	외자기업이나 합자기업의 중국측 고급관리인원, 경영책임자 또는 중견간부, 택시기사, 해외관광객의 가이드, 경영규모가 비교적 큰 개체호의 경영자, 국유기업의 책임자, 변호사, 미용사, 고급주방장 등 전문인
부호형	100,000이상	280,000	1	민영기업가, 합자기업의 사장, 유명연예인과 운동선수, 유명화가나 작가, 주식제기업의 책임자, 증권경영고소득자, 부당한 방법으로 치부한 사람

출처: 금희연(2000:172)

이러한 고소득층의 자산규모와 증가 속도를 5분법으로 계산하여 개혁·개방 이전과 개혁·개방 이후의 소득격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4> 베이징시 각 소득집단이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단위:%)

연도	소득수준에 따라 응답자를 다섯 집단으로 분류	각 소득집단이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1955년	최하 20%	7.17%
	중하 20%	15.72%
	중간 20%	19.39%
	중상 20%	22.22%
	최상 20%	35.51%
1965년	최하 20%	8.65%
	중하 20%	14.18%
	중간 20%	18.21%
	중상 20%	23.95%
	최상 20%	35.95%
1975년	최하 20%	9.52%
	중하 20%	13.83%
	중간 20%	16.66%
	중상 20%	22.29%
	최상 20%	37.68%
1978년	최하 20%	8.90%
	중하 20%	12.69%
	중간 20%	16.38%
	중상 20%	21.83%
	최상 20%	40.22%

연도	소득수준에 따라 응답자를 다섯 집단으로 분류	각 소득집단이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1987년	최하 20%	7.26%
	중하 20%	11.14%
	중간 20%	15.24%
	중상 20%	20.18%
	최상 20%	46.19%
1992년	최하 20%	5.60%
	중하 20%	9.22%
	중간 20%	11.88%
	중상 20%	15.09%
	최상 20%	58.20%
1994년	최하 20%	4.43%
	중하 20%	7.95%
	중간 20%	10.72%
	중상 20%	14.09%
	최상 20%	62.83%

출처: 金春林(2003:59-62)

<표 2-4>를 통해 195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각 소득집단이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최하 소득집단과 최상 소득집단이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약 7~9%, 35~37%이며, 기타 각 집단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개혁·개방 이전에 베이징 주민의 분배구조에는 큰 변화가 없었음을 설명해 준다. 1978~1987년까지의 두드러진 특징은 고소득층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고소득층이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78년 40.22%에서 1987년 46.19%로 상승했다. 그러나 기타 각 집단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다소 감소하였음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최하 소득집단이 8.9%에서 7.26%로, 중

하 소득집단이 12.69%에서 11.14%로 낮아졌다. 이것은 이 단계에서 소득 격차의 변화가 일부 사람을 먼저 부자로 만드는 선부론에 그 원인이 있음을 보여준다. 1980년대에 비해 1990년대 이후에는 고소득집단과 저소득집단 간의 격차가 더욱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고소득집단이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른 반면, 기타 각 소득집단이 총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모두 약간씩 낮아졌다. 이는 두 집단간의 소득격차가 더욱 심화되었음을 보여준다. 1994년 최상 소득집단이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최고 62.83%까지 이르렀다. 이에 반해 기타 각 집단이 총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모두 낮아져 최하 소득의 20% 인구가 겨우 총 소득의 4.43%를 차지했다.

이것은 소득격차가 커진 주요 원인이 소수의 고소득층이 차지하는 소득의 비율이 과도하게 증가하여 절대 다수층과의 격차가 벌어진 데 있음을 설명해준다. 즉 중간 소득집단과 중상 소득집단이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에 훨씬 못 미친다. 그래서 사회 안정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중간 소득층이 지나치게 취약함을 보여준다.

1994년 중국 전체 20%의 최저 빈곤가구의 소득은 전체소득의 4.27%를 차지했다. 반면에 20%의 최고 부유가구의 소득은 전체소득의 50.24%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미국의 빈부차이에 버금가는 것이다. 미국의 《商業周刊》1994년 보도에 의하면 미국의 최고 부유한 가구의 20%는 전체 소득의 44.6%를 차지하였다. 반면 최저 빈곤가구의 20%는 전체 소득의 4.4%를 차지했다고 밝혔다(李 炯 2000:159). 그리고 중국 도시(城鎮)¹⁶⁾ 주민중 10%의 최고소득 가구와 10%의 최저소득 가구의 1인당 평

16) 이후 성진(城鎮)은 도시라 표기하고 성시는 도시(城市)로, 성향(城鄉)은 도시·농촌으로 표기함

균소득의 차이는 1978년 1.8배에서 1994년에는 점차 확대되어 3배가 되었다. 농민소득과의 차이는 2.9배에서 점차 확대되어 6.6배에 이르렀다.

또한 1993년 전국 연 평균 소득이 5만 위안이 넘는 가구가 530만에 이르며 매년 100가구중 2가구가 고소득 행렬에 진입하였다(楊宜勇 1997:35). 1995년 연 평균소득이 5만 위안 이상인 고소득 가구는 전국에 600만 가구로 전국 도시·농촌 주민 총 가구 수의 3%를 차지했다(陸建華 2002:301).

이러한 도시 주민의 소득·자산의 격차와 도·농주민의 소득·자산의 격차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까지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지니계수¹⁷⁾을 통해 소득의 격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5> 도시주민, 농촌주민, 도시·농촌주민 소득의 지니계수

연도	도시주민 지니계수	연도	농촌주민 지니계수	연도	도시·농촌주민 지니계수
1978	0.16	1978	0.21	1979	0.31
1986	0.19	1982	0.22		
1987	0.20	1983	0.25		
1988	0.23	1984	0.27	1988	0.382
1990	0.23	1985	0.30		
1991	0.24	1986	0.31		
1992	0.25	1988	0.34		
1994	0.37	1994	0.411	1994	0.434

출처: 陸建華(2002:290-291)

17) 지니계수는 소득불균형을 나타내는 수치로 '0'에서 '1'까지 표시한다. 지니계수는 가계간의 소득 분포가 완전히 평등한 상태를 0으로 산정해 산출하는 지수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높아 '부익부 빈익빈'의 정도가 심화됨을 의미한다. 0.4가 넘으면 상당히 불평등한 소득분배의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니계수를 통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소득분배상황은 물론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 자산분배상황도 살펴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1980년 0.403에서 90년 0.428, 95년 0.450, 99년 0.457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은 미국에 상응하는 지니계수를 보이고 있다.

<표 2-5>에서 도시주민의 지니계수보다 농촌주민의 지니계수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농촌인구 중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과 향진기업에 종사하는 주민의 소득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니계수의 증가는 중국 사회내의 수입 불균형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중국의 지니계수는 1996년의 0.424에서 계속적으로 상승하여 1997년의 0.425, 1998년에는 0.456에 이르렀다.

국가 통계국의 표본조사에 의하면, 1998년 연소득이 10만 위안 이상의 고소득 가정이 500만 가구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 사회 과학원의 조사에 따르면, 가족 자산이 백만 위안을 초과한 가구 수는 1,000만 가구인 것으로 조사 되었다(閻志民 2002:460). 베이징시의 백만 부호는 150~200만 명으로 추산된다. 중국 내의 극소수 고소득층은 전체 인구의 5%인 6,500만 명으로 한국의 인구보다도 많다(동아일보 2002/05/27).

도시·농촌주민의 저축액을 분석한 결과 1998년말 은행의 저축액은 53,407.5억 위안으로 그 중 81.5%의 저축액은 19.6%를 차지하는 고소득층의 저축액이었다(閻志民 2002:460). 그 중 1.8만 위안은 80%의 중·저소득 가구의 소유였다. 20% 저소득 가구의 1가구당 평균 저축액은 약 만 위안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나머지 60%는 7,000만 중등소득 가구의 것으로 그들의 저축액은 1.6만 위안이며 1가구당 저축액은 2.3만 위안이다(陸建華 2002:302).

이러한 고소득층의 개인 소득과 소유하고 있는 자산규모는 경제발전이 가속화되면서 더욱 확대되었다. 베이징 사회과학원에 따르면 베이징시 고소득 가구의 평균 총 자산액은 이미 235.6만 위안에 달했다. 그 중 실물자

산은 66.2%로, 여기에는 주택 및 복장이 평균 69.1만 위안, 실물소비는 평균 8.5만 위안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자산은 33.8%로, 그 중에서 1/3은 유동자산이고, 2/3는 은행 예금으로 평균 저축액은 24만 위안이며 주식투자는 23.1만 위안 정도이다. 최고 고소득층은 평균 자산이 287만 위안으로 연 수입이 50만 위안 이상의 가구가 고소득 가구수의 12%에 달한다. 이들의 총자산은 고소득 가구 총자산의 51.42%를 점유하고 있다(許海峰 2003:209-210).

2. 소득 수준

중국에서 고소득층을 형성하고 있는 부류는 사영기업주, 전문경영자, 전문기술자, 개체호와 삼자기업의 경영인 및 중견 간부, 예술인, 권력을 남용하는 공무원, 상장 회사의 직원이나 주식 투자자, 전문직 종사자 등이다(陸建華 2002:305). 이러한 중국 고소득층을 직업군에 따라 7범주로 분류하여 소득수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고소득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영기업주계층, 전문경영자계층, 전문기술자계층은 더욱 더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함으로 이 부분에서 제외시켜 '5장 고소득층의 주요구성'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첫째, 삼자기업 및 외국기업의 중견간부이다. 이들은 대부분 화이트칼라로 평균 월 소득이 이미 2,000달러를 초과했다. 이들의 연 평균 소득은 5~15만 위안이고, 일부는 50~100만 위안에 이른다. 일반적인 직원의 연 평균 수입은 3만 위안 정도이다(閻志民 2002:461). 이들은 고소득층의 구성 중 교육수준이 높고 안정된 사회적 지위를 가졌다.

둘째, 개체 공상호이다. 개체호는 1970년 후반 도시로 돌아온 하방 지식 청년들의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 허용되었다. 개체호는 정부의 규제가 사라지면서 수공업, 생활 서비스업 등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개인의 돈벌이 욕구라는 공급측 요인이 결합하여 그 수요가 급속히 늘어났다(서석홍 2002:163). 일부분의 개체 공상호는 평균 소득이 전인민 소유제 노동자의 연 평균 임금의 3.5배 정도 높으며 극소수는 연 평균 소득이 몇 십만 위안에 이른다.

셋째, 상장회사의 고급관리자, 주식증권 경영자 및 부동산업자이다. 상장회사의 고급관리자는 최근에 생겨난 계층으로 처음에는 주식을 팔아 부를 얻었다. 또한 몇몇 기업의 연봉제 실시로 몇 십만 위안에서 많게는 백만 위안에 이르는 연봉을 받고 있다. 덩샤오핑의 남순강화로 주식시장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주식 매매자들이 상당수 늘어났다. 주식 매매자 가운데 몇 개월 동안 십만 부호에서 심지어 백만 부호가 된 이들도 적지 않다. 주식시장에서 주식매매를 통해 부를 획득한 이들은 다시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매매를 통해 더 많은 부를 획득하였다. 1991년 베이하이(北海)의 부동산회사는 10개가 되지 않았지만, 1992년 하반기에 이르러 1,000개로 증가하였다(李 炯 2000:165). 주식증권 경영자나 부동산 개발상은 ‘주식매매’, ‘부동산투기’, ‘상권매매’ 등을 이용해 갑작스럽게 부를 얻어 연 평균 소득이 십여만 위안에서 몇 십만 위안에 이르고 있다. 몇몇의 주식 대부호는 연 평균 소득이 백만 위안에서 심지어 수백만 위안에 이른다.

넷째, 변호사, 작가, 중간상인(브로커)이다. 보통 변호사의 연간 소득은 10만 위안이며 일부의 유명 작가들은 출판비로 100만 위안 정도를 받는다

(許海峰 2003:207).

다섯째, 일부 학자와 전문가들이다. 일부의 경제학자의 출장비는 3만 위안 정도이며 일반적인 강의비는 3시간 강의에 1,000~5,000위안을 받는다. 『시장형세의 분석보고』를 쓴 경제학자의 경우 몇 시간 강의비로 20만 위안을 받는다(許海峰 2003:207). 일반적으로 직업별 기준으로 볼 때 교수를 고소득층이라고 규정할 수 없지만, 일부 유명 학자나 교수의 경우 출장비와 강의비로 높은 사례금을 받고 있다.

여섯째, 그 외에 특수 전문기술자들이다. 주로 도시의 연예계 관련자, 유명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로 이루어져 있다. 시장경제의 도입초기에 문화시장의 결핍과 규범이 없는 것을 이용해 대중의 부분적인 소비심리에 영합함으로써 자신의 출연비를 무한정 요구하게 되었다(李炯 2000:165-166). 유명 연출가는 만 위안에서 최고 백만 위안 정도의 연출비를 받고, 패션 모델은 일반적으로 400~500위안으로 국제수상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1,000위안 정도의 금액을 받는다(楊宜勇 1997:37-38). 가수, 영화, TV 스타들의 연 평균 소득은 작게는 십 만 위안에서 몇 십만 위안, 소득이 높은 스타의 경우에는 백만 위안 이상을 받는다. 이들이 받는 소득은 완전히 불합리한 것은 아니지만 불합리한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일곱째, 각종 불법적인 수단으로 고소득을 획득하는 경우이다. 각종 불법적인 수단을 이용해 얻은 소득은 부패소득이다. 현 단계 중국에서 당내와 정부내 몇몇의 간부들이 당과 정부의 신용·명예와 당과 인민들이 부여한 권력을 남용하여 개인의 사욕을 채우고 있다. 부패소득의 주요 방법은 공공권력에 속해 있는 공직자들이 직접적으로 그들의 권력을 남용해

이익을 얻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李 炯 2000:167). 또 다른 불법소득의 획득 방법은 각양각색의 커미션을 받고, 권모술수를 사용하거나 위조품을 생산하는 방식이다(楊宜勇 1997:38). 게다가 금지된 제품을 밀수하여 암거래를 하고, 공금횡령이나 탈세, 매춘, 마약, 인신매매를 통하여 불법적으로 부를 획득하고 있다.

<표 2-6> 고소득자가 집중되어 있는 직업의 평균 월 소득(2000년)

職 業	平均月收入(元)
사영기업경영자	13,445
주식투자자	8,491
사회중계서비스직	8,096
관광안내원	7,699
주식회사책임자	6,908
삼자기업 중·고급관리자	5,713
IT기업산업종사자	5,676
개체경영자	5,405
연예·예술인	4,615
국유기업책임자	4,538
법률전문가	4,160
보험종사자	4,055
고급요리사	3,819
신문출판문화종사자	3,767
사업단위책임자	3,713
주식매매자	3,636
국가기관책임자	3,450
공정기술자	3,431
증권업종사자	3,390
대학·중등·초등학교교수	3,372
회계사	3,368
운송업자	3,200
과학연구원	3,140
위생전문기술자	2,728

출처: 中國統計年鑒(2001); 朴賢珠(2002)에서 재인용

<표 2-6>에서 살펴본 고소득층의 월 소득은 평균소득임으로 동일 직업 안에서도 어느 정도의 소득 격차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 살펴보았듯이 고소득층을 이루고 있는 사회성원들은 기업 경영자나 금융, 보험, 사회 전문기술영역 등 국가 정책의 보호를 받는 직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의 소득 규모는 더욱 증대되어 가고 있다.

3. 교육수준

개혁·개방이후 일부의 사영경제를 인정하면서 선부론에 입각한 고소득층은 농촌개혁의 영향으로 먼저 농촌에서 발생했다. 개혁·개방 초기의 고소득층은 기존체제의 주변부에 있었기 때문에 기존체제로부터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구체적으로 이 시기의 고소득층은 주로 퇴직한 노령의 사업가들이나 직업이 없는 젊은이들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도시지역에서 분명히 나타났다. 때문에 초기의 고소득층은 사실상 교육수준이 낮은 성원으로 구성되었다(김재철 2003:4). 그러나 198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고소득층을 형성하고 있는 성원들의 교육수준은 점점 높아졌다. 고소득층의 주요 구성원인 사영기업주의 교육수준을 통해 중국 고소득층의 교육수준 정도를 간접적으로 살펴보면 <표 2-7>와 같다.

<표 2-7> 사영기업주 교육정도

(단위: %)

교육 수준	문맹 (文盲)	초등 (小學)	중등 (初中)	고등 (高中)	직업고 (職高)	중전 (中專)	대전 (大專)	대학교 (本科)	대학원 (研究生)
1993년조사	1.0	9.9	36.1	26.3	2.7	6.9	11.7	4.9	0.6
1995년조사	0.3	8.2	34.9	28.9	2.9	6.7	13.1	4.5	0.8
1997년조사	0.3	6.4	31.4	41.7	高中포함	高中포함	本科포함	19.5	0.7

출처: 1995年中國第二次私營企業主抽樣調查結果, 『中國私營經濟鑑(1996年版)』
第 157 和 『1997年全國私營企業調查部分數據』(新聞發社會提供); 朴賢珠
(2002)에서 재인용

주: ‘職高’는 실업고등학교이며 ‘中專’은 중등 전문학교로서 중졸 혹은 고졸 학력
을 지닌 사람을 대상으로 2년간의 실무 교육을 행하는 학교이다. ‘大專’은
단과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말한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중국내 석·박사 뿐 아니라 해외에서 학위를 취득
하고 온 사람들도 상당수에 이른다. 또한 ‘한 자녀 정책’으로 말미암아 고
소득층의 자녀에 대한 교육열기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교육수준의 정
도에서 볼 때, 고소득층의 3.1%는 석사나 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
이다. 이들은 고소득층 내에서도 소득이 가장 높으며 월 평균 소득은
11,034위안이다. 그러나 고소득층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다.
1.7%를 차지하는 초등학력의 사람들은 월 평균 소득이 7,947위안으로 2위
를 차지했다(孫秀 2002:76).

우한(武漢)시의 사영기업주들을 조사한 결과, 자녀가 적어도 전문대학의
교육을 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 중, 대학교의 학력을 희망하는 사람이
35.6%, 석사학력 20%, 박사학력을 희망하는 사람은 33.3%로 조사되었다
(楊宜勇 1997:51).

경제발전이 가속화되고 사회 문화수준이 점차 향상됨에 따라 고소득층 성원들의 학력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고소득층은 초기의 고소득층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게다가 현재 고소득층은 자신의 교육 수준뿐 아니라 자녀에 대한 교육열기 또한 높아 이제는 엘리트 계층으로 서서히 변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4. 소비형태

실질적인 이윤배분에 있어 사영기업주의 90.8%는 재생산 투입을 1위로 설정한다. 2위는 20.5%로 자녀의 교육비, 3위는 20.4%로 고급 소비품 구매, 이밖에 4.6%는 오락소비에 비중을 두었다. 사영기업주의 1인당 매월 생활비는 1,827.56위안으로 1993년 전국 도시주민의 1인당 매월 생활비인 175.9위안 보다 10배 이상 많다. 그 중 의복 지출은 생활 지출의 12.5%로 1993년 전국 도시주민 의복 지출액인 25.74위안 보다 9배 높은 것이다. 생활비는 생활 지출의 34.7%로 전국 도시 주민의 87.55위안 보다 7배 이상 높다. 고소득층의 오락소비 비용은 974.23위안으로 생활비 지출의 53.3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1993년 도시주민의 평균 지출액인 41.57위안 보다 23배 높은 것이다(楊宜勇 1997:45). 고소득층의 소비형태를 각 계층간 부인의류 구입가격으로 간접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8> 중국의 주민들의 소득계층의 부인 의류 구입가격

계층별	비율(%)	구입스타일
고액소득계층	5	2,000-3,000위안의 고급브랜드
개혁·개방정책에 의한 신규계층	10	1,200-1,500위안의 일본제품
도시의 화이트칼라	20	800-1,000위안의 일본/홍콩제품
기타 계층	65	400-500위안의 중국국내기업제품

출처: 금희연(2000:114)

<표 2-8>에서 보듯이 계층별, 소득별로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가격군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체의 약 5%에 달하는 고액소득자들은 한 벌에 2,500위안 정도의 고가의류를 구입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형태는 전체 주민의 65%를 차지하는 기타 계층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국전국공상연의 조사에 의하면 기업경영주의 월 소비 평균지출은 3,223위안이고 최저지출은 100위안이다. 최고지출액은 60,000위안이며 중간 지출 수준은 1,000위안으로 나타났다. 그 중 월 소비 수준이 5,000위안을 초과하는 비중은 14.8%이고, 1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는 8.3%이다. 월 지출 수준이 10,000위안 이상의 '사치 소비 집단'은 기업경영자 집단의 5%를 차지한다(閻志民 2002:351).

1996년 조사에 의하면 사영기업주의 순 이윤은 평균 406,762위안으로 그 중 기업주의 연 평균소득은 92,335위안으로 22.7%를 차지한다. 기업의 순이윤 중 기업주 가족의 소비수준과 소비형태를 살펴보면, 평균 가족 수는 4.6명이고 가족 연평균 소득은 110,470위안이다. 그리고 가족생활 소비

총지출 평균은 34,051위안이다.

<표 2-9> 사영기업주 가족 소비구조(1996년)

항 목	지출액(元)	비 율(%)
생활소비총지출	34,051	
그중 :		
식사와 식품지출	11,631	34.2
교육지출	4,630	13.6
복장지출	4,525	13.3
보건지출	2,390	7.0
오락(여가)지출	2,263	6.6

출처: 陸學藝(2002:231)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의 승용차 구매 평균 지출액은 19.95만 위안이다. 승용차 구입에 대한 의식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2-10> 승용차 구입에 대한 인식

부와 재력의 상징	권력의 상징	모르겠다	성공이나 성취	지위의 상징	부패나 부정행위	아무것도 아니다
44.0%	9.7%	9.4%	9.2%	6.8%	4.7%	3.9%

출처: 금희연(2000:152)

<표 2-10>에서 보듯이 고소득층의 소비는 단순한 소비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와 재력을 드러냄으로 인해 자신을 과시하는 수단 의 성격이 강함을 알 수 있다.

1999년 고소득 가구의 평균 생명보험 지출액은 2,065위안이며 연간 자

녀 교육비는 11,301위안이다(許海峰 2003:210). 그 중 자녀 생활비는 4,183 위안, 학습비용은 3,193위안, 학교 선택비용은 3,925위안으로 <표 2-9> 1996년 소비구조의 교육지출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것은 고소득층의 자녀에 대한 교육열을 짐작하게 한다. 고소득층의 평균 주택 면적은 111.3 평방미터이다. 고소득층 자산의 투자 형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2-11> 고소득 가정의 투자 상황

투자 항목	고소득가정의 비중(%)	실질적인 1가구 평균 투자액(만 위안)	총체적인 1가구 평균 투자액(만 위안)
1. 주식	26.2	131.8	34.5
2. 상업과 서비스업	16.1	74.4	12
3. 국고채권	8.4	140.9	11.8
4. 수장품	3.8	276.7	10.5
5. 제조업, 가공업	6.4	144.5	9.2
6. 부동산	7.4	109.8	8.2
7. 기업채권	3.1	159.6	4.0
8. 교통운송업	2.6	33.8	0.9
9. 기타	5.1	258.1	13.1

출처: 李 拓(2002:254)

주로 고소득층의 투자 형태는 주식, 서비스업에 많이 치중되어 있다. 고 소득층의 소비형태는 일반 대중과 비교해 나날이 소비격차가 심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소비습관은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에 있어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

5. 소득세

중국의 개인소득세 수입은 매년 증가하여 1980년 16.2만 위안에서 1998년에는 338.59억 위안에 달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소득세 증가의 이면에는 부호들의 엄청난 탈세현상이 존재한다. 전국수입수준에 도달했거나 근접한 부호인구는 2억에 가깝고 개인소득세 세원은 1,000억 위안 정도이다. 하지만 사실상 징수된 세금은 징수 가능한 세원의 1/3 수준이고, 부호들의 탈세 행위는 심각하다. 1996년 징수된 193억 위안의 개인 소득세 중, 75%는 임금과 생산경영소득이고, 25%는 청부, 임차, 재산세, 이자 및 노동보수소득이다. 고소득자들은 상대적으로 베이징, 상하이 등지에 집중되어 있고, 80% 이상의 개인소득세는 개인의 임금소득세이다. 도시·농촌주민의 저축액과 비교하면 도시·농촌주민의 저축총액 중 40%를 차지하는 고소득층의 납세액은 전국 개인소득세 총액의 10%에도 못 미친다(陸建華 2002:307). 예를 들면, 2001년 광둥성의 개인소득세 총액은 84.69억 위안이지만 그 중 고소득자의 소득세는 2.33%에 불과해 세수의 유실이 크게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孫秀 2002:78).

6. 사회적 인식 및 지위

‘부유층이 얼마나 정당하게 부를 얻었는가?’라는 질문에 “아주 많다” 5.3%, “비교적 많다” 14.5%, “많지 않다” 48.55%, “거의 없다” 10.7%, “모르겠다” 20.8%가 응답했다. 이러한 설문조사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중국 고소득층의 부의 획득 과정에 있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부를 획득하였다고 보는 의견이 현저히 높았다(楊宜勇 1997:54). 이것은 곧 일반 대중이 한편으로는 고소득층을 선망의 대상으로 보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

는 고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그리 좋지 않음을 보여준다. 사실상, 고소득층이 부의 획득에 있어 합법적인 방법으로 자산의 규모를 늘리는 반면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늘리는 경우도 많이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불법적인 소득은 <표 2-12>에서 보듯이 소득분배 차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표 2-12> 각종 불법수입이 수입 분배차이에 미치는 영향

구분		정상 수입 의 차이	사영불법 수입의 차이	관리 불법 수입의 영향	행정비용 이전의 영향	총수입차이
도시에 대한 영향	지니계수	0.1689	0.0962	0.0056	0.004	0.2747
	비중(%)	61.5	35.0	2.0	1.5	100
전체에 대한 영향	지니계수	0.2961	0.0846	0.0055	0.0026	0.3888
	비중(%)	61.5	35.0	2.0	1.5	100

출처: 이희옥(1999:115)

주: 이 도표는 80년대 대비 90년대의 상황이다. 이 가설은 첫째, 사영기업주(총 인구의 2%, 1인당 수입 7000元/ 이중 불법수입 5000元), 둘째, 당정관리의 경제 범죄율(10% 전 인구의 0.21%, 1인당 불법수입 3000元) 셋째, 도시당정관리(전 인구의 1%로 행정 관리비를 개인소비로 전용하는 비율 15%로 1인당 불법수입 증가 300元)로 설정한 것이다.

고소득층의 사회적 지위에 관해 중국 공산당 허베이(河北)성 위원회 통일전선부가 136명의 사영기업주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의 경제적 지위에는 비교적 만족하면서도 정치적 지위에 대해서는 만족도를 비교적 낮게 평가했다. 이러한 간극은 엘리트 사영기업자에게 있어서 특히 심각하게 인식되었다. 자신의 경제적 지위와 정치적 지위 간의 간극에 대한 인식에 있어 소득이 변수로 작용했음은 한 조사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사영기업에 대한 2002년 조사는 자산이 1,000만 위안이 넘는 사영기업가 집단과 50~100만 위안 사이의 집단에 대해 각각 자신의

경제적 지위와 정치적 지위를 1을 최고로 하고 10을 최저로 하는 지수로 평가할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에 있어 두 집단은 분명한 격차를 보였다. 경제적으로 자신이 최고지위인 1이나 2에 있다고 답한 비중은 전자가 후자에 비해 각각 42%와 27%가 높았다. 반면 정치적인 측면에서 격차는 각각 14.3%와 10%에 머물렀다. 이것은 대규모 기업을 운영하는 사영기업가들이 경제적으로는 자신의 지위를 높게 평가하면서도 정치적으로는 자신의 지위에는 덜 만족하고 있음을 제시한다(失方明 外 1998:242; 김재철 2002:8). 다시 말해 기업가들의 출현과 함께 일부 사영기업가들이 자신의 정치적 지위에 대한 기대와 현실간의 격차를 크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지위와 정치적 지위의 격차로 인해 사회주의 체제 안에서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안정시키기 위해 경제적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창출해 줄 정치적 지원과 정책결정 과정 내부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해줄 정치적 통로가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자신들의 경제적 발전을 더욱 제고하기 위한 그들의 욕구는 “고소득층의 경제적 지위가 제고됨에 따라 정치지위를 제고시키라는 요구도 강화되었다”는 당 중앙조직부가 2001년 5월초에 작성한 조사보고서의 지적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중국 고소득층은 자신들의 경제적 지위에 비해 정치적 지위는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한다. 그들은 이러한 인식의 차이를 없애기 위해 끊임없이 정치적 요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적 요구는 아직까지 단순히 그들의 합법적인 이윤과 사유재산의 안전에 관심을 가진 정치적 요구에 그치고 있다.

요약하면, 중국 내에서 고소득층을 형성하고 있는 집단은 소수이지만, 10분법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들의 자산규모는 전체 인구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격차는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사회적 변화에 따라 사람들은 더욱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지만, 상대적으로 박탈감 또한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가치관의 변화는 도시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일부 벼락부자들이 출처가 부정확한 자금으로 과소비와 저급의 사치 행위를 하는 경향은 저소득 계층으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켜 사회에 대한 불만을 야기시키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대적 박탈감은 임금 불만도 초래했다. 이로 인해 중국 도시 주민들은 더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해 ‘제 2’의 직업을 찾아나서는 현상도 많이 일어난다. 중국 고소득층의 부의 획득방법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그들의 사회적 지위와 인식, 교육수준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제 3장 고소득층 형성 배경

제 1절 정책적 요인

1. 선부론(先富論)

고소득층의 등장 배경이 되는 중요한 요인은 불균형 발전이론인 先富論이다. 선부론은 1978년 덩샤오핑이 처음으로 제기했다. 1978년 12월 제 11기 삼중전회(三中全會)에서 종래의 계급투쟁론이 부정되고 정치에서 경제로 중점이 옮겨졌다. 덩샤오핑은 중국 상황에 맞는 '중국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 건설'을 주장했다. 더불어 중국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의 장기목표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로 설정했다(정천구 외 2002:97). 따라서 덩샤오핑 시대의 핵심과제는 '현대화 노선'이며 핵심사상은 '실사구시(實事求是)'였다. 덩샤오핑은 중국이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를 경제 발전에 두었으며, 국가 운영의 중심을 어떻게 하면 경제를 발전시키느냐에 두었다.

이렇게 경제발전이라는 하나의 중심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동시에 견지해야만 했다. 하나는 계획개방정책이고, 다른 하나는 4항 기본원칙¹⁸⁾의 고수였다. 현대화의 노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내적 개혁과 대외적 개방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18) 덩샤오핑은 물질적 풍요, 즉 경제성장의 추구를 통해 중국을 국제사회의 경제대국으로 만들기를 희망했으나 정치제도까지 바꾸어 중국을 자본주의화 할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민주화의 움직임이 널리 퍼지는 것을 염려하여 1979년 그는 '4항 기본원칙'을 제시하여 개혁개방정책에 정치적 틀을 마련하였다. '4항 기본원칙'이란 ① 맑스·레닌주의, 마오쩌둥사상, ② 사회주의노선, ③ 공산당에 의한 지도, ④ 인민민주독재를 견지하는 것을 말한다. 실질적으로 공산당체제의 유지를 의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논리도 이러한 이론의 영향을 받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1978년 “일부의 지역, 일부의 기업, 일부의 노동자, 농민이 근면한 노력과 훌륭한 성과를 통해 먼저 높은 소득을 얻고, 먼저 풍족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허용한다”는 덩샤오핑의 선부론(先富論)이다. 경제개발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했던 개혁개방의 견지는 구체적으로 선부론과 불균등 발전전략을 탄생시켰다.

덩샤오핑은 “빈곤은 사회주의가 아니다”라고 단정했다.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종래의 평균주의, 절대 평등주의(均富論)를 버리고 “먼저 잘 살 수 있는 지역과 사람부터 잘 살아라”고 호소했다. 이 정책은 개발전략이 물질적 자극을 중시하는 전략으로 전환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나카가네 카츠지 2001:85).

그러나 당시 이 논의는 제반 경제적 성과에 기초한 구체적인 방침으로 시도된 것이 아니라, 선언적인 측면이 강했다. 이에 따라 1984년 <중공중앙의 경제체제 개혁에 관한 결정>과 사회주의 초급단계·사회주의 상품경제를 제시했던 1987년의 13차 대회를 거치면서 보다 강조되었다. 결국 이 논리는 1992년 덩샤오핑의 남순강화(南巡講話)¹⁹⁾를 통해 보다 분명하

19) 1992년 덩샤오핑의 남순강화는 武漢, 深圳, 珠海 등지를 시찰하면서 행한 연설로서 개혁개방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천안문 사건 이후 기세 등등한 보수파의 논조를 강력하게 반박하였다. 이러한 남순강화의 의미를 요약하면 첫째, 시장경제와 계획경제에 대한 논쟁의 불식이다. 덩샤오핑은 “사회주의의 본질은 생산력을 해방시켜 생산력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과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또한 그는 일부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계획경제와 사회주의를 동등시하고, 시장경제와 자본주의를 동일시하는 견해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둘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판단의 기본원칙의 제시이다. 덩샤오핑은 보수파가 “姓社姓資論”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러한 이론이 의미가 없음을 강조하고,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판단에는 사회주의 사회의 생산력 발전에 유리한가? 사회주의 국가의 종합국력에 유리한가? 인민의 생활수준 제고에 유리한가? 등의 3가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하였다. 셋째, 하나의 중심 견지의 제시이다. 개혁개방 이후 계속해서 추진되어 온 경제건설은 여전히 중국이 견제해야 할 하나의 중심이라고 주장했다. 넷째, 사상해방과 개혁추진의 제시로 “개혁·개방과 경제건설은 앞을 향해 나가

게 강조되면서 현실의 논리로 자리 잡았다.²⁰⁾

이러한 선부론의 목적은 생산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동적극성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또한 부유의 전형을 만들어 사람들이 이를 따라 배워 전체 국민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치부현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며 사회질서를 유지하고²¹⁾ 장려와 징벌의 기능을 가지는 것이었다. 그리고 선부정책은 개인과 지역의 선부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의의를 가진다.

그리하여 개혁정책 실시에 있어 시간과 강도의 차이를 두었다. 중앙의 계획적인 지원으로 특정 지역과 단위의 경제체제 변혁은 빠르고 강하게 진행되었다. 이는 곧 다른 지역과 단위의 경제체제는 느리고 약하게 진행될 수 밖에 없도록 했다. 변혁시기가 빠르고 강도가 강했던 지역과 單位는 먼저 부유해져 기타지역 및 단위와의 격차가 확대되었다(唐忠新 1998:106). 덩샤오핑의 발전 전략은 ‘흑묘백묘론(고양이론)’²²⁾의 논리와도 연결된다. 이것은 자연히 중국 전체를 놓고 보면, 발전 가능성이 높은 동부를 우선 개발하여 중부와 서부로 이동시켜 나간다는 불균등 발전 전략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동부 연해지역은 근대 상공업의 집중지이다. 따라서 해외자원 획득·교통조건·기술정보 방면과 국제시장 진입에 있어 중

지 않으면 사회주의는 절대 견고해질 수 없다”라고 말하고 “개혁은 현 상태에 만족해서는 안 되며 정지는 곧 퇴보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역설하면서 진일보한 개혁추진을 강조하였다(정천구 외 2002:150).

20) “조건이 갖추어진 일부 지역이 먼저 발전하고 다른 일부 지역은 늦게 발전한다. 먼저 발전한 지역은 발전하지 못한 지역을 이끌어 결국 공동부유에 이른다”(鄧小平 1983:142).

21) 이것은 생산력이 낮은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기능한다. 이 논리는 또한 레닌이 “사회주의 시기에 국가가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사실상 존재하는 불평등한 ‘부르주아적 특권’을 옹호해야만 한다”는 논리와도 관련이 있다.

22)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잘 잡는 고양이만 최고다.’

서부 지역보다 경쟁력에서 우위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개혁·개방이후 중앙은 선부론에 입각해 동부 연해지역의 경제특구를 먼저 발전시키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또한 개체·사영경제를 허용·장려하는 것은 개체호와 사영기업주의 노동소득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들의 합법적인 자본수익을 보호하여 먼저 부유해지는 데 있어 정치적 보장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덩샤오핑의 이 같은 사상을 친 자본주의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덩샤오핑의 생각은 무조건 자본주의를 받아들이자는 것이 아니다. 그는 “자본주의에 계획이 있듯이 사회주의에도 시장은 있다”고 주장하여 상품시장, 주식 등은 제도의 문제일 뿐 체제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이러한 덩샤오핑의 “실천이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실사구시의 정신은 중국경제에 엄청난 발전을 가져다 주었다. 뿐만 아니라 물질적 자극론으로 인해 탈 평등주의를 초래했다.

2. 소유제의 다양화

개혁·개방 이전의 중국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틀 속에서 공유제(公有制) 경제만을 강조하며 국유기업의 발전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 1979년 이후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했다. 그리하여 사회주의 경제의 보완적 수단으로 비국유경제²³⁾의 발전을 모색하였다.

23) 2001년까지 전국에 등록된 개체 공상호는 2,433만개이고 등록된 자금은 3,435억 7천 9백만 위안이라고 하며, 2001년까지의 통계에 의하면 전국에 등록된 사영기업은 이미 202만 8천 5백 개이고 등록된 자본총액은 1조 8,212억 2천 4백만 위안이라고 한다. 그 중 1,000만 위안 이상이 2만 3천백개 기업이고 일억 위안 이상이 383개 기업으로 나와 있다.

비국유경제의 발전으로 인한 소유제의 다양화는 사회주의 초급단계론²⁴⁾에서 논란이 되었고 중국에서 계층분화와 빈부격차가 발생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비국유경제란 국유성격의 기업을 제외한 집단경제와 민간부문이 운영하는 경제요소로서 사영기업, 개체기업 및 외자기업, 각종 형식의 합작기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가운데 사영기업이 민간경제 영역의 주축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사영경제는 이제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대되고 있고 중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유희문 1999:79). 따라서 비국유경제의 발전은 곧 중국 경제사회 체제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개체경제의 발전을 살펴보면, 개체기업이란 ‘개인이나 가족이 소규모로 각종의 공·상업, 서비스 활동에 종사하는 자영업기업’을 의미한다. 7명 이내의 소수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통계상 개체기업으로 분류된다(고정식 외 2000:182). 문화대혁명이 끝난 1970년 말부터 정부는 도시로 돌아온 하방 지식청년들의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음으로 개체기업을 허용하였다. 정부의 규제가 사라지자 1978년 당시 15만 명에 불과했던 개체경제는 1985년에는 기업수가 1,000만개를 넘어섰다. 특히 1980년대 전반기와 1993~1998년 사이의 발전 속도가 빨라져 매년 200만 개

24)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은 중국에서 시장경제 도입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1978년 제 11기 3중전회에서 개혁의 구호를 제시하면서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을 중국경제의 지도노선으로 확정하였고 경제법칙에 의거하여 개혁을 실행함으로써 열악한 생산력을 급속히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정하였다. 시장경제의 운용 매커니즘을 도입함으로써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를 건설한다는 것이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의 주요내용이다. 또한 사회주의 초급 단계론에서는 초급단계에서의 모든 업무활동의 중심은 생산력 발전을 통한 빈곤과 낙후의 탈피에 두어져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른바 ‘생산력표준론’이라는 것을 제기한다. 이 생산력표준이란 “초급단계에서 모든 문제를 고려하는 출발점, 모든 업무활동을 점검하는 근본표준은 바로 그것이 생산력 발전에 유리한가 혹은 불리한가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논점은 초급단계에서는 특히 공유제를 주체로 한다는 전제 하에서 다양한 비사회주의적 경제성분을 발전시키고, 노동에 따른 분배를 주체로 한다는 전제 하에서 다양한 비 노동 소득분배 방식을 실행할 것을 적극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상씩 기업수가 증가했다.

<표 3-1> 개혁 이후 개체기업의 발전

항목	단위	1978	1981	1985	1990	1995	1999	2000
기업수	만개	-	183	1,171	1,328	2,528	3,160	2,571
종업원수	만명	15	227	1,766	2,093	4,614	6,241	5,070
등록자본	억 위안	-	5	169	397	1,813	3,439	-

출처: 中國統計年鑑(2001); 서석홍(2002:162)에서 재인용

비국유경제 성분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사영기업이다. 사영기업이란 ‘기업자산이 사인 소유에 속하고, 8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여 영리 활동에 종사하는 경제조직’을 가리킨다(서석홍 2002:163). 1978년 3월 국무원은 도시지역에서 개체호(個體戶)라 불리는 소규모 개인 사업가의 출현을 허용함으로써 1956년 모든 기업을 국유화한 이후 처음으로 기업의 사적인 경영을 용인했다(王長富 1997:3). 특히 도시부문의 경제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984년 이후에는 기업개혁의 일환으로 경영실적이 부진한 소형 국유기업과 집체기업을 개인에게 임대 혹은 매각 처분했다. 이것은 사영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 그리하여 사영경제는 비교적 방임적인 정책이 취해진 1984~1985년 상반기에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다.

사영경제의 존재가 공식적으로 허용된 것은 1987년 제 13차 전국대표대회에서 개체호와 사영기업 모두의 발전을 장려할 것을 선언하면서 부터였다. 다음 해인 1988년 전인대에서 “사영경제가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존재하고 발전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헌법이 수정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사영경제에 보다 분명한 존립근거를 제공하게 되었다. 또한 사영경제

가 급속하게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사영기업에 대한 제약이 제거된 1992년 덩샤오핑의 “남순강화(南巡講話)”와 중국공산당 14차 전국대표대회가 다양한 소유제가 공존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였다.

다음으로 외자기업과 주식제 기업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외자기업은 중국 역내에 외국자본의 직접투자에 의해서 설립된 기업이다. 이러한 외자기업은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외상독자기업 등이 있으며 이들을 ‘삼자(三資)기업’이라고 한다. 중국은 개혁·개방이후 부족한 자본, 선진기술, 관리기법을 도입하기 위해 조세, 물자공급 등의 면에서 다양한 우대조치를 제공하면서 외국자본의 직접투자를 적극 장려했다. 또한 종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한 수출용 생산거점 확보 위주의 투자에서 내수시장을 겨냥한 자본집약적 투자가 증대되었다(KIEP 1995:99-100; 서석홍 2002:172). 나아가 이미 세계 500대 다국적 기업 중 400개의 기업이 중국에 투자했다.

중국 전체 무역총액에서 외자기업의 무역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17.4%에서 계속 증가하여 2000년에는 49.9%에 이르렀다. 외자기업의 업종은 2000년에 제조업이 70.3%로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그밖에 서비스업(7.5%), 부동산업(6.3%), 도소매-음식업(6.0%), 건축업(2.8%), 농림목어업(2.5%) 등의 비중이 비교적 높다. 지역적으로는 광둥성을 비롯한 동부 연해 11개 지역에 전체의 81.2%가 집중되어 있다.

주식제 기업에 대해 살펴보면 주식제란 다수의 투자자가 상이한 액수의 자본을 출자하여 법인기업을 설립해 생산-경영활동을 수행하고, 각 투자자는 출자한 자본비율에 따라서 기업관리와 분배에 참여하는 기업제도를

가리킨다.²⁵⁾ 일반적으로 주식제 기업에는 주식유한회사와 유한책임공사 두 가지가 있다. 이밖에 기업 전체 직공이 비교적 균등하게 주식지분을 보유하는 주식합작기업도 넓은 의미의 주식제 기업에 포함된다. 중국에서 주식제는 1980년 초부터 연해지역의 농촌지역에서 최초로 출현했다. 도시에서는 1984년 베이징에서 최초의 규범화된 주식제 기업이 탄생했다. 1986년 말에는 상하이, 선천, 우한, 충칭 등의 대도시에서 국유기업의 주식제가 실험적으로 시작되었다. 1992년에 이르러 국무원은 11개의 주식제 실험 관련법규를 제정하여 공포했다. 1997년 이후 국유기업의 재산권 개혁이 본격화됨으로써 주식제 기업의 발전이 더욱 빨라졌다. 1999년 15기 4중전회에서는 대·중형국유기업 중에서 특히 우량기업을 주식제 기업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제기했다(서석홍 2002:174-175). 주식제로의 전환은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가장 중요한 방식이 되었다. 또한 중·소형 국유기업은 직공이 근속연수, 자금, 직무에 따라 주식지분을 보유하는 주식합작기업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아 졌다.

25) 중국에서는 주식제를 현대기업 자본조직의 한 형식으로 파악하여 자본주의도 이용할 수 있고 사회주의도 이용할 수 있는 중립적인 제도로 본다.

<표 3-2> 소유제별 고용인원 비중 추세(1978~2002년)

(단위: 만 명)

연도	1978	1980	1985	1990	1996	1998	1999	2000	2001	2002
도시(성진) 취업인원	9,499	10,444	12,358	14,059	19,815	20,678	21,014	21,274	23,940	24,780
국유	7,451	8,019	8,990	10,346	11,244	9,058	8,572	8,102	7,640	7,163
집체	2,048	2,425	3,324	3,549	3,016	1,963	1,712	1,499	1,291	1,122
기타 소유제*	-	-	42	155	412	1,078	1,069	1,186	1,522	1,827
외자기업**	-	-	1	8	540	587	612	642	671	758
사영기업	-	-	-	-	620	973	1,053	1,268	1,527	1,999
개체기업	15	81	450	670	1,709	2,259	2,414	2,136	2,131	2,269

주: * 기타 소유제는 주식합작제, 연합경영, 유한책임회사, 주식유한회사로 구성되며 연합경영이란 국유·집체·기타기업들 사이의 합영기업을 말함.

** 외자기업에는 홍콩, 마카오, 대만의 투자기업이 포함.

출처: 中國統計年鑑(1991, 2001, 2003); 이중희(2003)에서 재인용

<표 3-3> 소유제별 기업수와 생산총액

(단위: 만, 억 위안)

		기업수			공업생산총액		
		1985	1995	1999	1985	1995	1999
전국총계		518.53	734.15	792.99	9,716	91,894	126,111
	국유기업	9.37	11.80	6.13	6,302	31,220	35,571
	집체기업	174.21	147.50	165.92	3,117	33,623	44,607
	개체, 사영기업	334.78	568.82	612.68	180	11,821	22,928
	기타유형기업	0.17	6.03	9.18	117	15,231	32,962

출처: 中國統計年鑑(2000)

<표 3-2>와 <표 3-3>을 보더라도 개혁·개방 이후 비국유경제의 발

전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표 3-2>를 통해 국유부문과 집체부문을 제외하고 사영기업, 외자기업, 주식제 기업이 급속히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비국유경제의 발달은 중국경제 발달의 촉진제가 된 반면 비국유기업과 공유제간의 임금격차를 초래했다. 그로 말미암아 개체노동자 및 사영기업자가 임금노동자보다 훨씬 많은 임금을 받는 현상을 가져왔다. 그리고 합영·합자기업에 취업한 노동자들은 국유기업, 집체기업 노동자보다 훨씬 많은 임금을 받게 되었다(홍영립 외 1993:138). 이러한 현상은 비국유경제의 발달로 인한 소유제의 다양화가 소유제별 임금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비국유경제로 말미암은 소유제 개혁은 소유제 내부의 균형관계와 이와 관련된 생산관계와 분배관계·경제형식과 경영방식의 개혁, 경제운영 메커니즘의 개혁은 거시조절과 시장조절의 관계·각종 경제핵심의 운용을 가져왔다. 사회주의 경제의 지도와 관리는 정부의 국민경제에 대한 관리체제와 각 부문간의 관계·국가와 기업의 관계·중앙과 지방·지방과 지방의 관계에 대한 개혁을 의미하고 있다. 이 중에서 계층분화를 합법화하고 확산시켰던 개혁은 소유제 문제였다. 왜냐하면 중국은 그 동안 ‘전 인민적 소유’를 국영개념으로 단순화하는 등 소유의 개념을 경직되게 해석하여 생산력 발전을 가로막았다. 소유제 개혁의 기본 방향은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이다. 또한 독립적인 자주경영과 독립채산을 할 수 있는 상품생산과 경영자를 창출하는 한편, 기업과 직공의 관계를 정립하는 데 그 기본 방향을 두었다. 이를 위해 공장장과 경영자에게 경영관리권을 부여하고 직공에 대한 민주적인 관리권을 보장한 결과 생산관계와 분배관계의

다양화를 촉진할 수 있었다.

현 단계에 있어 중국은 다른 많은 국가들이 자본주의적 조건 하에서 달성한 공업화와 생산의 상품화·사회화·현대화를 사회주의적 조건 하에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과거에 소멸시킨 자본주의적 경제성분을 다시 중국 내에 허용·발전시키게 된 것이다.²⁶⁾ 또한 공유제를 주체로 한다는 전제 하에서 사회주의 경제 내에 다양한 경제성분의 존재를 허용하게 되면, 분배의 측면에서도 곧 노동 이외의 요소에 의한 소득분배²⁷⁾를 승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다양한 소유제 경제는 다원화된 분배방식을 가져오고, 노동에 따른 분배와 생산 요소에 따른 분배를 병존시킨다. 이러한 소유제 개혁에 의한 진전은 특히 중국의 도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비국유경제인 사유경제가 신속히 발전하면서 개인의 소득 또한 단일한 형식이었던 것에서 자본소득과 경영리스크 소득의 형성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이러한 자본소득

26) 사영경제를 허용·발전시키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중국에서의 사영경제는 질적·양적으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공유제경제와의 관계 속에서 그 영향과 제약을 받는다. 또 인민민주주의제 국가정권의 지도·감독과 국가계획 부문의 경제적·행정적 지도를 받아 그것이 갖고 있는 부정적 요소는 최소한으로 억제될 수 있다. 사영경제를 허용·발전시킴으로 얻는 긍정적 역할들은 다음과 같다. ① 개인이 유휴자금을 생산자금으로 전환하여 생산과 건설을 촉진하고 ② 이를 통해 도시와 농촌지역에 존재하는 방대한 잉여 노동력에 새로운 취업기회를 제공하며 ③ 동시에 소비자자금을 생산자금으로 전환하여 현재 중국에 심각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고 ④ 공유제 경제가 담당할 수 없는 국민경제의 빈 공간을 파고들어 인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켜주고 ⑤ 민활하고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통해 공유제경제에 경쟁압력을 넣어 경제 전체와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는 초급단계 하의 낙후된 생산력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따라서 사회주의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즉 公有制 경제를 주체로 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趙紫陽 저;중소연구 제11권 4호:250).

27) 이러한 非노동소득에는 ① 예금이나 채권 구입에 의한 이자수입 ② 일부 주식회사기업이 발행하는 주식 구입을 통한 배당금수입 ③ 기업경영자의 수입에 포함된 일부 리스크 부담금 ④ 임노동을 고용하여 얻은 사영기업주의 착취수입 등이 포함된다(서석홍 외 1990:24).

과 경영리스크 소득의 출현은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소득격차를 조성했다. 또한 국유기업 개혁에 있어서 주식제의 출현 등도 기업내 평균주의 분배방식을 변화시키는데 주요한 요인이었다. 이처럼 개혁 이전의 단일한 공유제 경제와 비교할 때 지금의 다종(多種)소유제 형식에서 사회성원간의 소득격차가 더 커지고 고소득층이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요약하면, 1978년 덩샤오핑이 정권을 잡은 후 시행한 개혁·개방 정책이 중국 경제발전의 추동력이었다. 대외 개방정책으로 외자를 도입하는 경로를 마련했다. 비국유경제의 발달로 소유제가 다양화되면서 중국 내부에는 소득격차로 인해 계층이 분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계층분화는 고소득층을 형성하는 기반이 되었다.

3. 세수문제

국가가 발달함에 따라 개인의 소득은 더욱 투명해진다. 소득 금액에 기초해 국가는 먼저 소득의 합법성을 심사하고 법에 의거해 소득세를 징수한다. 만약 중국인들이 모두 국가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지금과 같은 고소득층은 형성되지 않았을 것이다.

중국은 1994년 이후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에 근거하여 임금, 장려금소득, 개체상공업자의 생산과 경영소득, 기업사업단위에 대해 청부경영소득, 특허소득 등 각종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소득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임금과 보너스 이외의 수입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세수 적용수단이 취약한 상황이다(이희옥 1999:112).

국가 소득세 규정에 의하면 개인은 만 위엔 이상의 소득시에 45%의 세율로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만약 연수입이 몇 십만 위안에서 심지어 백만 위안이 넘는 고소득자들과 사영기업주들이 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그들이 축적한 자산규모와 자산의 축적속도가 급속히 감소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백만, 천만, 억만 장자는 출현할 수 없었을 것이다(閻志民 2002:467). 그러나 고소득층의 다수가 국가 정책에 반하는 위법, 탈법과 조세제도의 미비점 등을 악용해 거액의 소득을 확보했다. 금융 사취, 토지전매, 토지사용권 매매, 밀수, 불법경영 등으로 획득한 소득은 국가수입의 유실에 속하는 문제이다. 그 원인은 제도의 측면에서 보면, 개인의 소득에 대한 국가의 감독이 아직 정착되지 못했고 자금의 흐름도 명확하지 않아 개인 소비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윤리적 측면에서 보면, 고소득층과 권력가들의 병적인 이기주의가 공급횱령, 공급의 사유화 등 부정·부패를 사회에 만연케 한다.

현재 중국 내에서 고소득자의 소득근원에 관한 문제는 묵과되고 있다. 또한 많은 부호들이 법적 제재에서 벗어나 끊임없이 불법적인 수단으로 국가의 자산과 노동자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閻志民 2002:467). 이러한 현상은 곧바로 국유자산의 유실로 나타나 소득 재분배와 같은 중앙에서의 거시조절의 힘을 약화시키고 있다. 엄격한 세법, 특별히 “개인소득세법”의 완전성은 고소득층 발생의 중요한 통로를 저지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살펴보았듯이, 대중은 납세 문제와 관련하여 고소득층의 위법행위를 의심하고 있으며 이것은 사실에 기인한 것이다. 중국 정부는 불법 수입수단에 대한 법률을 강화하고, 개인소득세에 대하여 엄중하고 단호한 적용을 해야 할 것이다.

제 2절 사회·환경적 요인

1. 자본 및 지식요인

자본요인은 동산과 부동산을 포함한다. 개혁·개방이후 시장경제에 진입하면서 개인의 수입 분배방식을 결정하는 자원은 개인의 재산권리가 점차적으로 구체화됨을 보여준다. 개체, 사영기업과 각종 형식의 주식제 경제 성분은 개인이 부를 축적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고 이러한 생산영역에 투자함으로써 자본을 축적시켰다. 사영경제발전의 경로에서 보면 1999년 6월에 이르러 전국에 등록된 사영기업은 128만개이며 총 등록자본은 8177억 위안에 이른다. 중국인민은행에 따르면 1998년 저축예금의 14.6%는 개체·사영경제의 경영성 자금이다. 각종 유형의 주식제 경제의 발전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본수익의 분배방식으로 작용했다. 이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주식시장에 투자하여 많은 이윤을 획득했다.

지식과 자본수익을 비교하면 분배방식에 대해 지식요인은 그렇게 직접적이지 않지만 영향력은 갈수록 확실해지고 있다. 높은 문화와 지식수준 및 전문기술 능력을 소유한 사람은 사회 각 영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공무원 분배 영역, 시장화의 정도가 비교적 높은 기업 등에서의 위치는 소득 수준의 많고 적음을 결정한다(陸建華 2002:312-313). <표 3-4>에서 보듯이 지적 수준 및 교육별 수준에 따라 임금의 격차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3-4> 지양수성 난징시의 학력별 연 임금(2003년)²⁸⁾

(단위: 위안)

학력	상위	중위	하위	평균
박사급 이상	96,384	46,684	12,816	63,251
석사	82,210	22,007	16,678	25,620
대학	74,060	29,546	9,333	30,159
전문대	57,850	20,972	7,614	24,493
고등학교, 기술학교, 중전(中專)	47,541	14,869	6,957	19,827
중졸이하	45,595	12,198	6,329	16,428

출처: 江蘇省南京市不同學力工資價位(2003/12/26); 河仁湜(2004)에서 재인용
www.lm.gov.cn/gb/content.2003-12/26/content_19671.htm.

1999년에서 2000년도에 출현한 IT산업 열기로 새롭게 생겨난 부호들은 모두 확실한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인재들이다. 조사에 의하면 개인소득수준은 날이 갈수록 교육수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또한 사회 각 부문에서 소득에 미치는 지식요인의 영향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2. 권력 및 인간관계요인

수입 분배방식의 변화에 대해 말할 때 권력요인은 부정적인 방면에서 이해해야 한다. 현 단계 중국사회 안에서 당의 행정권력은 경제활동에 대해 관여하는 정도가 매우 높다. 행정·기업·군대에 대한 당의 우위는 중국 정치를 안정화시키고 결속시키는 순기능이 크지만, 그 부작용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당에 의한 권력독점과 당의 우위는 결국 ‘사

28) 석사급의 평균 임금수준이 대학 본과보다 낮은 것은 석사급 졸업자들이 그리 많지 않아 기업들은 이 보다 한 등급 높은 박사급이나 한 단계 낮은 대학 졸업자들을 오히려 선호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람에 의한 지배'를 불러와 부패를 야기시키기 때문이다. 게다가 권력자원과 기타 사회자원간의 교체정도 또한 아주 높다. 그리고 권력수여와 행사의 감독기제가 아직 불완전하여 국가의 권력을 벗어난 소득의 획득은 극히 보편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폭로된 많은 부패사건들의 상당부분이 당정관원이 그들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회의 고소득층이 된 사건들이었다. 이와 같은 정황을 미루어 보아 행정권력을 점유한 사람이 각종의 방식으로 권력자와 합작하여 생산경영방식에서 특수한 지위를 차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陸建華 2002:314). 이렇게 획득한 지위를 이용해 빠른 속도로 경제적인 성공을 이루어 부자가 되었다. 이것이 곧 권력요인 작용의 결과이다.

인간관계요인은 개인의 사회관계 네트워크로 경제활동에 있어 독자적인 자원으로 작용한다. 중국 사회네트워크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각 영역에서 인간관계자원은 아주 중요한 자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어떤 학자들은 인간관계자원을 “사회자본의 핵심”이라고 부른다.

특별히, 중국은 ‘관시’의 나라이다. 중국사회에 있어서 관시는 사회 조직구성원간의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단순한 윤활유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간의 실리적 혜택을 교환하고 공유하는 실용성이 강하다. 따라서 관시의 유무, 관시의 질과 범위는 개인의 사회적 성공과 기업경영의 성패에도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되는 일도 없고, 안되는 일도 없다”는 말은 곧 그 만큼 관시가 사업의 성패에 있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관시’의 문화가 상당히 뿌리 깊은 사회에서 인간관계요인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핵심요소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3. 기회요인

중국에서 고소득층을 이루고 있는 성원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적절히 이용해 부를 획득했다. 먼저, 그들은 생산영역의 시장화 단계에서 가격 ‘쌍궤제’²⁹⁾의 가격차를 이용해 쉽게 부를 획득했다. 부분적인 물가를 점차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가격의 차이가 발생했다. 그것이 원인이 되어 거대한 ‘차임’이 발생했다. 소수의 상인들은 이것을 부를 획득하는 기회로 여기고 각종의 수단을 사용하여 쌍궤제의 기회를 얻었다. 1987~1988년 동안 가격차이의 총액은 약 1억 위안을 웃돈다. 1991년 국무원 추산에 따르면 이렇게 형성된 물자, 자금과 외화의 가격차가 매년 높아져 4,000억 위안 정도에 이르렀다(李 炯 2000:169).

둘째, 이자의 가격차를 이용해 부를 축적했다. 조사에 의하면 통화 팽창률은 은행 이자율의 연한을 높였다. 기업은 은행측이 공시한 이자를 통해 대출을 받는 일은 극히 어려웠다. 따라서 기업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이 공시한 이자율보다 더 높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았다. 이로 인해 정부측이 공시한 은행자금과 시장가격간의 차액이 발생했다. 국가규정에 의하면 연 대출 이자율은 10% 정도인 반면 많은 단위와 개인이 계획외의 대출은 25%의 이자율을 지불했다. 이자율의 차이는 15%에 달한다. 일년간 체제 밖에서 순환하는 대출의 규모를 가정하면 전체 금융기

29) 정부가 식량유통의 일부를 행정적 수단에 의해 직접 관리하여 도시주민에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식량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유통되도록 하는 소위 ‘쌍궤제(雙軌制)’가 도입되었다. 쌍궤제는 일종의 2중 가격제도로써 상하 20%로 되어있던 생산재 가격변화의 상한 및 하한을 1985년 2월에 철폐함으로써 국가계획에 따른 생산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가격을 적용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구의 대출규모 내에서 20%의 이자율 차이는 2,000억 위안 정도로 GNP의 3.5%정도에 상응하는 것이다(楊宜勇 1997:42).

셋째, 부동산의 토지사용권(批租文)³⁰⁾ 매매의 기회이다. 개혁초기 각급 간부들은 각종의 관계들을 이용해 적은 가격으로 국가로부터 토지사용권

30)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이하 중국헌법)과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이하 중국토지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국의 현행 토지소유제는 '사회주의 토지 공유제'이며, 이는 다시 '사회주의 전민 소유제'와 '사회주의 노동군중집체소유제'의 양종 형식으로 구분된다. 중국헌법 제 10조는 "도시 토지는 국가소유에 속한다. 택지와 자류지(自留地), 자류산(自留山)도 집체소유에 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관리법 제 2조에서도 "중화인민공화국은 토지의 사회주의 공유제를 즉 전민소유제와 노동군중 집체소유제를 실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합하면 현행 중국의 토지소유제는 다음 7가지 성격으로 요약할 수 있다. ① 모든 토지에 사회주의 공유제를 시행하고 있다. ② 토지의 사회주의 공유제는 전민소유제와 노동군중 집체소유제로 구분된다. ③ 토지의 사회주의 전민소유제란 국가소유제 형식의 구체적인 채택이며, 국가가 전체 노동인민을 대표하여 전 인민에 속한 토지를 점유하고, 점유, 사용, 수익, 처분 등의 권리를 행사함을 의미한다. ④ 토지의 사회주의 노동군중 집체소유제란 집체경제 조직 소유제 형식의 구체적인 채택이며, 각 집체경제조직이 각 집체경제 조직 내의 전체 노동인민을 대표하여 각 집체에 속한 토지를 점유하며, 점유, 사용, 수익, 처분 등의 권리를 행사함을 의미한다. ⑤ 도시 시구(市區)의 토지는 모두 국가소유이다. ⑥ 농촌과 도시 교외구역(城市郊區) 토지는 법률에 의하여 국가소유인 것 외에는 집체소유이다. 중국의 도시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 관계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토지 사용권의 분리 및 상품화에 관계없이 도시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소유를 견지한다. 이는 두 가지 뜻을 내포한다. 하나는 국가가 소지(素地)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한다는 것과, 또 하나는 국가는 소지를 전민소유제나 집체소유제 단위 또는 개인과 외국상인, 외자기업에 양도하여 사용토록 하고,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소지와 투자된 시설 및 건축물을 무상으로 국가에 귀속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토지 사용권의 양도 기간 내에 각 경제행위 주체는 법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토지를 가공하고 건축물을 구축하므로, 소지의 소유권 주체는 단일하나 소지에 설치·건설된 시설물이나 건물의 소유권 주체는 다원적이 될 수 있다. ③ 부동산 3요소의 사용권의 주체는 일치된다. 즉 토지의 사용권을 재양도, 임대, 저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이 취득한 토지 사용권의 기한은 전 사용권자가 사용한 기간을 제한 잔여기간이 된다. 토지 사용권의 양도 만기일이 되면, 토지 사용권과 함께 토지 위의 건축물과 인공구조물의 소유권은 법에 따라 국가에 환수·귀속 된다. 도시 토지의 소유권 및 사용권의 이동형태는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① 국가에 의한 도시 토지 사용권의 유상·유기한 양도이다. ② 토지 사용권의 재양도이다. 즉, 국가로부터 토지 사용권을 양도받은 자가 그 토지 사용권을 다시 재양도하는 것이다. ③ 토지 사용권의 임대이다. 토지 사용권을 취득한 자는 토지의 사용권과 지상의 건축물 및 기타 부속물을 제 3자에게 임대료를 받고 임대할 수 있다. ④ 토지 사용권의 저당이다. 토지 사용권을 취득한 자는 토지 사용권을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 대출이나 채무를 위한 저당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⑤ 행정배분 방식에 의하여 무상 분배받은 토지의 이전, 임대, 저당이다. ⑥ 집체소유 토지의 국유토지로의 전환이다. ⑦ 합작경영 조건으로 토지 사용권을 출자하는 경우이다(박인성 외 2000:399-405).

을 획득한 후 높은 가격으로 이 토지사용권을 타인에게 빌려 주어 이윤을 획득했다. 1990년 부동산 열기로 일부 토지사용권의 가격은 몇 십배까지 급등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경로로 부자가 되었다.

넷째, 주식매매이다. 주식발행의 초기단계에 주식제 개혁은 실험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 필요가 엄격히 심사·허가되었다. 주식의 공급과 수요는 극히 불균형했고, 주식의 가격은 폭등하여 부를 획득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대량의 원시주식을 얻은 사람들은 하룻밤 사이에 부자가 되었다(李炯 2000:170). 어떤 사람들은 자신과 주식회사의 각종의 관계를 이용하여 다양한 수단으로 대량의 주식을 저가로 사들여 벼락부자가 되었다.

종합하면, 중국의 경제개혁 정책에 있어 비국유경제의 허용과 활성화는 중국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비국유경제의 발전 과정 속에서 사영경제의 허용은 자유롭게 시장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시장경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부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자신의 우수한 시장경쟁 요소들을 이용하여 부를 축적하는 고소득층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건전한 체제가 뿌리 내리지 않아-특히 세수문제에 있어- 여전히 탈세행위와 같은 불법적인 수단이 일어나고 있다. 때문에 중국 사회 안에서 고소득층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토대를 제공하였다.

제 4장 고소득층의 형성 경로 및 형성 과정

제 1절 고소득층의 형성 경로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 속에서 중국은 사회적 지위가 비교적 낮은 집단이 먼저 시장경제에 진입하였다. 반면에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집단은 시장경제 속으로 진입한 속도는 늦었다. 그 원인은 첫째, 제도가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지위가 비교적 높은 집단-사회 중심부 집단-은 기존 체제에서 많은 이익을 누려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기존 체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체제로 진입하게 되면 그간 누려왔던 많은 이익을 잃게 될 것이라 예상했던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그들로 하여금 시장경제로 빨리 진입하는 것을 막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사회지위가 비교적 낮은 집단-사회 주변부 계층-은 기존제도에서는 이익을 누릴 수 없었다. 때문에 제도 변천이 발생하게 되면 쉽게 기존체제를 떠나 새로운 체제 속으로 진입하고, 아울러 새로운 제도가 주는 이익을 신속히 누렸다.

그러나 제도 변천이 어느 정도에 이르러 신체제로 초래되는 이익이 점점 더 명확해지면서 사회 중심부 집단이 새로운 체제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예를 들면 1980년대 초기 개체호와 사영기업주의 대열에 먼저 들어온 사람들은 비교적 사회지위가 낮은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1992년 이후 간부와 지식인층이 대거 ‘下海’하면서 이러한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다.

또한 지식인층이 비록 시장경제에 참여하는 속도가 조금 늦었지만 지식·정보·기술·사회관계 등 다방면에서 확실한 우세를 차지하고 있었

다. 때문에 시장경쟁에서 충분히 그들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점차 사회 중심부 집단이 시장으로 진입해옴으로 권력이 시장과 상호 결합될 기회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실제 간부들과 각종 권력을 장악한 정부관원들, 권력관계에 근접한 일부 전문인들의 독직과 부패 그리고 국가 재산을 횡령하는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고소득층은 주로 개체호와 사영기업주, 전문경영인, 전문기술자계층에서 나타난다. 또한 자유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인기 연예인, 운동선수 등도 고소득층으로 성장하고 있다.

한편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농촌에서도 고소득층이 형성되었다. 이 경우에는 농촌의 공업, 건축업, 운수업, 상업 등 서비스업이 주도하고 있다. 특히 향진기업이나 농촌의 풍부한 자원을 이용하여 부를 형성한 비율이 높다. 즉 순수한 농업노동을 통한 부유호의 형성은 사실상 어려운 상태이다(이희옥 1996:24). 농업형 고소득층은 특수한 경우이며, 고소득층은 일반적으로 개체호와 사영기업주, 전문경영인, 전문기술자들에게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소득층을 합법성의 정도에서 볼 때 백색, 흑색, 회색계층으로 분류할 수 있다. 백색의 경로로 부를 획득한 계층은 노동과 합법적인 경영으로 부를 획득한 집단이고 흑색계층은 불법적인 경영으로 부를 획득한 집단이다. 회색계층은 백색과 흑색의 중간에 있는 집단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인 상황은 더 복잡하며 백색계층도 완전한 백색계층이 아니라 그 안에 흑색과 회색적인 요소가 있고, 흑색계층 안에도 어느 정도의 백색계층과 회색계층이 있기 때문이다(李拓 2002:242).

한편 고소득층이 여전히 사회주의 질서 속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부를 폭발적으로 획득하는 방법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때문에 대부분 반합법, 불법경로를 통해 치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1. 합법적 경로(백색경로)

이것은 공개적으로 합법적인 통로를 통하여 고소득층이 된 경우이다. 즉 정기적인 임금과 보너스 및 성과급의 방식을 통해 부를 축적하여 고소득층이 되었다(이희옥 1996:26). 이와 같은 경로를 통해 고소득층이 된 경우는 주로 사영기업주 등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고소득층의 특징은 빠른 판단력과 상품경제에 대한 의식이 매우 강하고 경제상황을 빠르게 판단하는 능력이 가진 조직력이 강한 사람들이다.

또한 중국인 대부분이 체제의 구속성으로 인해 모험심이 부족한 경향이 있으나, 이들은 강력한 조직력과 경영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범주에 포함할 수 있는 직업군은 전문기술자 그룹, 유명연예인, 그리고 기술혁신을 중시하는 개체호와 사영기업가들이다. 이러한 백색계층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발전의 희망적 요소이며 정책적으로 보호받고 격려 받아야 한다(李 拓 2002:243). 이들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에 중요한 구성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수(數)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것은 사실상 중국의 고소득층이 다른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2. 반합법적 경로(회색경로)

회색계층은 신·구체제 전환시기의 산물이며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이전하는 과도기에 처해 있다.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법적·제도적 장치, 법의 허점을 이용해 반합법적인 경로로 부를 축적하는 이른바 회색계층이 나타나고 있다.

정보를 이용한 부의 축적, 권력과 ‘관계’를 이용한 부패성 축적이 대중을 이룬다. 검적수입, 재산권의 임대, 사용권의 양도, 주식이자수입, 유산과 상속 등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들의 치부는 공장·주택·설비 등을 통해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저축·현금소지·유가증권·고급소비재 등으로 나누어진다.

이 계층은 시장경제의 발전에 따라 두 가지 계층으로 다시 나누어진다. 하나는 관리들이 회색시장에서 관장(官場)³¹⁾으로 진입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판시(關係)’를 이용하여 기업인이 지하교역을 지상교역으로 옮겨오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회색시장에서 합법적인 경쟁시장으로 들어오는 경우이다. 중국의 ‘권력과 금전의 교역(權錢交易)’이라는 부패행위는 슬로건으로 해결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오히려 권력과 관련된 이권, 즉 호구·문건발급·수출입허가·면세지표·이자율 등을 통해 권력을 이용하는 경향이 만연해 있으며, 샤하이(下海)·판반공사(翻版公司)·제2 직업 등의 형태로 불법이 합법화되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이희옥 1999:8-9). 이처럼 반합법적 경로는 불합리하고 불합법한 형태를 법적·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합법화시켜 부를 획득하는 경로이다.

31) 관리사회를 일컫는 말로 주로 관리사회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허위사가 아침·알력 등의 특징을 강조하는 말이다.

3. 불법적 경로(흑색경로)

이 계층은 전적으로 불법으로 치부하는 유형이다. 사기, 밀수, 수뢰, 아편 판매 등이 부를 획득하는 중요한 원천이다.³²⁾ 1988년 기준 각종 불법수입은 전국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분배 차이가 지니계수로 0.3888이고 정상적인 수입은 76%에 달하고 있다.

1994년의 보고에 의하면 이러한 불법범죄 행위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부패행위로 인한 범죄는 56,491건이고 부패관리의 수뢰범죄는 30,877건이다. 1백만 위안 이상은 57건, 50만 이엔 이상은 134건, 10만 위안 이상은 1,090건이다. 공금유용은 13,663건으로 백만 위안 이상은 208건이었다. 수출입세, 탈세 등의 범죄는 7,475건으로 이 중 100만 위안 이상은 40건이었다. 범죄행위에 연루된 현 또는 처급관리는 1,037명이었으며, 국장급 64명, 부부장급 고급관리도 포함되었다(이희옥 1996:27).

전인대 3차 회의에 의하면 법률에 의거해 엄중히 처리한 밀수, 금융사기 등으로 회수되어진 직접적인 경제 손실은 22.4억 위안이었다. 그리고 권력 남용, 뇌물, 공금 횡령 등의 범죄로 회수된 직접적인 경제 손해는 15억 위

32)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조사 보고서는 이 문제를 8개의 유형으로 분류해 놓아 눈길을 끈다. ① 중요한 생산재와 필수 소비물품을 불법 경영하는 행위 ② 위조, 불량상품을 제조·판매하고, 유독한 식품을 생산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는 것 ③ 강제로 매매하여 시장을 독점, 물가를 마음대로 올리는 행위 ④ 밀수와 그 물품의 판매 ⑤ 반동적이고 외설적인 간행물과 화보, 음성제품의 인쇄, 판매활동 ⑥ 매음·도박 등 사행적인 수단으로 이득을 얻는 행위 ⑦ 경영범위를 임의대로 확대하거나, 경영방식을 고쳐 바꾸는 것 ⑧ 정량보다 적게 하거나, 가짜를 넣거나 원료를 속이는 것. 실제로 이밖에 개체, 사영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두 가지 지하경제활동이 있는데, 하나는 개체 사영경제에서 생겨난 지하경제활동이고 다른 하나는 개체경영자와 사영기업주가 참가하는 지하경제활동이다. 특히 개체공상업호는 지하경제에 없어서는 안 될 불가결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황위정 1995:125-126).

안에 달했다. 1998년 세관 수사에서 밀수사건이 7,382건으로 밀수금액은 137억 위안에 이른다. 정부의 물품구입시의 커미션, 합동건설시의 커미션, 관원이 참여 또는 주관하는 밀수에 대한 관세 손실, 국유기업의 탈세, 공금횡령의 이자, 예산외의 불법 자금 등을 포함한 부패 자금은 3,430억 위안이다. 이것은 GDP의 4.79%에 이르는 것이다(李 拓 2002:244).

이와 같이 고소득층 형성이 불법·반불법의 양상을 띠며 따라 소비구조도 왜곡되고 있다. 따라서 품질보다는 고가 유명브랜드 상품을 중심으로 구매하는 이른바 과시형, 졸부식 소비유형과 과소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제 2절 고소득층의 형성 과정

고소득층 구조변화의 모든 추세는 개혁·개방의 진행과정에서 고소득층의 성격과 수준이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부를 획득하는 수단은 점차 복잡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다. 중국 고소득층의 구조변화를 연구하는 이유는 중국 고소득층이 매 시기 어떻게 부를 획득하고, 어떠한 사람들이 부를 불법적으로 획득하며 어떠한 사람들이 부를 합법적으로 획득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70년대는 체력(體力)으로, 80년대는 재력(財力)으로, 90년대는 지력(智力)으로”라는 표현으로 부를 형성하는 수단을 명료하게 밝힐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러한 표현으로는 부족하다(李 拓 2002:234).

중국 고소득층의 부의 축적 과정은 5단계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시장화의 초기(제 1단계)

이 시기는 개혁·개방의 초기단계로서 개혁의 중요 지점을 농촌과 동남 연해지구에 두었다. 농촌의 개혁조치는 많은 농민의 생산 적극성과 창조력을 자극시켰다. 그리하여 농업의 생산효율을 높이는 한편, 농민을 농지에서 해방시켜 농민이 가지고 있는 잉여경제와 시간을 크게 증가시켰다.

농촌 개혁의 중점은 경영관리체제의 개혁으로 가족경영을 부활시켰다. 이러한 가족경영 방식은 두 가지 형태가 동시에 출현했다.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 사이에 중국사회는 농업노동의 생산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호별생산책임제 등과 같은 경영형식이 출현하게 되었다. 호별생산책임제는 1981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그 이후에 다시 감소 추세를 보인다. 그 후 가족 경영제도는 “호별생산책임제(包產到戶)”에서 “호별경영책임제(包幹到戶)”로 농가생산책임제를 도입하게 된다.³³⁾ 호별경영책임제는 농민의 시장주체로서의 지위를 부활시켰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물질이윤을 인정하였다. 또한 정치적으로 농민의 민주권리를 보호하고 농민의 적극성과 창조성을 가져왔다. 이러한 가족경영 방식의 도입으로 농민의 수입이 증가하고 생활이 개선되면서 1979~1983년 농가의 수입이 연평균

33) 호별생산책임제(包產到戶)는 다음과 같이 운영되었다. 농가는 일정 생산비 범위 내에서 생산 임무를 달성하고 노동점수(工分)를 취득하도록 하였다. 개별농가가 생산책임을 초과하여 생산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노동점수를 주어 더 많은 배분을 받도록 하였으며, 책임을 완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반대로 불이익을 가하였다. 생산대는 개별농가로부터 수집한 총량에서 농업세와 집단유보분을 공제하고 난 나머지를 개별농가의 노동점수에 따라 분배하였다. 개별농가는 경상투입재를 스스로 공급하여야 하나 작부계획, 수리관개, 역축 및 기계의 이용은 생산대가 통제하였다. 호별경영책임제(包幹到戶)는 다음과 같이 운영되었다. 개별농가에서 나온 수입은 계약에 따라 국가세수와 집단 유보분을 제외한 후 전부 개별농가에 귀속시킨다. 즉 임무를 완성한 후에 발생한 잉여의 전부를 각 개별농가의 소유로 하는 것이다. 개별농가는 생산대로부터 토지의 사용권만을 부여받지만, 역축 및 생산자재의 경우에는 소유권까지 분배받았다. 따라서 농가는 노동력을 스스로 편성하고 작부계획과 생산·투자까지 스스로 결정하여 행하게 되었다(고정식 외 2000:120).

18.3% 증가하였고, 1983년 개인생활을 위한 소비지출액이 248.3원에 달했다. 또한 비교적 적은 토지에 비해 많은 인구는 농민들로 하여금 토지를 떠나 새로운 직업의 기회를 찾도록 했다. 또한 특구(特區)의 건립은 정부가 지방에 비교적 큰 경영자주권을 이양했다(李 拓 2002:235).

이 영역으로 진입한 사람들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사람은 미취업 청년과 퇴직인원들이었다. 이들은 양로(兩勞)³⁴⁾에서 자유로워진 성원으로 도시 주변에 거주하였고 상대적으로 문화 수준이 낮았다.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 이들은 개체호로 존재하였다(許海峰 2003:197). <표 4-1>과 <표 4-2>를 통해 이 시기의 출신성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1> 베이징시 개체호의 출신성분(1989년)

출신 성분	인원수	차지 비율(%)
미취업청년	902	22.2
퇴직인원	1,492	36.7
사회의 무직자	433	10.6
식방된 '兩勞'인원 *	475	11.7
해고된 인원	14	0.3
이직·사직한 인원	612	15.0
휴직으로 급여가 정지된 인원	42	1.0
도시로 유입된 농민	99	2.4
합 계	4069	100

* 형만기로 식방하거나 '勞動教養'에서 식방된 인원을 가리킴

출처: 이정희(2000:131)

34) 兩勞는 '勞動改造'와 '勞動教養'를 일컫는 말이다. 사회의 법규를 어긴 대가로 노동을 하거나 노동과 교육을 함께 병행하는 것을 말한다.

<표 4-2> 상하이시 개체호의 출신성분(1989년)

출신 성분	인원수	차지 비율(%)
미취업청년	8,919	7.83
퇴직인원	8,003	7.02
사회의 무직자	26,897	23.60
석방된 '兩勞'인원 *	4,962	4.36
이직·사직한 인원	6,038	5.30
도시로 유입된 농민	59,118	51.89
합 계	113,937	100.00

* 석방후 다른 일을 먼저 하다가 개체호로 직업을 바꾼 것은 포함되지 않았음
출처: 이정희(2000:131)

초기 고소득층(개체호)은 非農산업을 경영함으로써 부를 축적하여 萬元戶 혹은 몇 십 만호가 되었다(李 拓 2002:235). 처음에 부를 축적한 사람은 주로 소수의 농민, 상인, 건축업자, 도매상 또는 출신성분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었고 교육수준 또한 높지 않았다. 초기의 부자들은 비록 각종 사회·문화·경제·인적자본은 부족했지만 대다수가 부지런히 일을 하여 부를 얻었다.

이 시기의 고소득층은 개혁·개방 초기에 부를 획득한 선두주자로서 비록 출신성분이 좋지 않고 부를 축적하는 수단도 단순했지만 사회에 미친 영향은 매우 컸다.

2. 생산 영역의 시장화(제 2단계)

1984년 10월 중공 12차 3중전회에서 <중공중앙경제체제개혁에 관한 결

정>을 통과시킴으로써 개혁의 중심은 농촌에서 도시로 전환됐다. 그리고 국유제를 기초로 하는 상품경제체제의 개혁목표를 분명히 했다. 그 중심은 국유기업이고 중점은 가격개혁이었으며 이와 동시에 비국유기업도 빠른 성장을 보였다(李 拓 2002:235).

국가는 집체기업과 사영기업을 적극 장려시키는 정책을 시행했다. 또한 공업 생산 원료제 가격의 ‘쌍궈제’를 실시하여 국가계획내의 상품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상품의 가격을 정하는 정책을 실행했다. 계획내의 상품은 국가가 직접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고 계획외의 상품은 국가의 지도 하에 가격을 정하거나 시장경제에 의해 가격을 정하였다.

‘쌍궈제’는 상품의 생산 및 판매와 생산재의 배분 등이 국가계획에 포함되지 않았고 생산단위에 있어서도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다. 이와 같은 가격체제 개혁 조치들은 가격의 유연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시장상황 변화에 대해 중국경제의 적응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시장기구가 정착하기에는 불완전했던 인센티브 체계와 지방정부 및 생산단위는 사회주의적 타성으로 인해 가격체제의 개혁이 불충분했거나 중앙정부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소수의 과학 기술 지식인과 일부의 전문 기술자들이 “下海經商”으로 새로운 부의 계층을 형성하였다. 가격 ‘쌍궈제’ 이후 향진 기업 경영자, 국유기업 책임자, 소수의 사영기업주들이 ‘쌍궈제’의 결함을 틈타서 부를 축적했다. 또한 ‘下海’³⁵⁾인들, 물자조달 관리자와 판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쌍궈제’의 거대한 가격차를 이용하여 부를 축적했다.

35) 문자적으로는 바다에 뛰어 든다는 의미로 개혁·개방으로 발생한 다양한 경제활동으로 인해 큰 돈을 벌게 된 집단을 의미한다.

그들의 개인 재산은 몇 만 위안에서 수십만 위안에 이르고 심지어 수천만 위안에 이르기도 했다(李 拓 2002:236).

이 시기의 고소득층과 초기 고소득층을 비교해 보면 구성요소들이 확실히 높아졌다. 부를 축적하는 수단 또한 다양해졌지만 부지런히 일을 하여 정직하게 부를 획득한 일부의 사람을 제외하고 대다수가 체제의 결함을 틈타 부를 축적했다. 부패현상 역시 이 시기부터 뚜렷하게 나타났다.

3. 금융영역의 시장화(제 3단계)

1992년 덩샤오핑의 남순강화(南巡講話)로 중국의 개혁은 가속화 되었다. 금융체제의 개혁과 상장회사의 대량 출현으로 부를 획득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다. 이러한 고수입자들은 증권회사의 직원, 증권업무의 중개기구의 직원, 증권 변호사, 증권회계사, 평가사 등이다. 이들은 상장회사의 직원들과 접촉하여 쉽게 주식을 획득했고, 이 주식을 다른 주식 투자자들에게 팔아 부를 획득했다(許海峰 2003:197).

‘주식’, ‘부동산’, ‘개발구’ 열기 가운데 금융시스템 자원을 이용한 사람은 백만 위안, 천만 위안, 심지어 억 위안의 부자가 되었다. 이러한 형태의 부의 축적은 상상도 못할 만큼 빠른 속도의 성장이었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부동산 투자는 1991년에 비해 1992년에 이르러서는 2배정도 증가했는데 그 투자액의 1/3은 은행에서 대출된 금액이었다. 또한 삼자기업의 급속한 발전과 대규모의 외자 도입으로 고액 연봉을 수령하는 외국기업의 경영자가 생기게 되었다. 특수직업의 가수, 영화배우, 체육스타 등도 역시 고소득층이 되었다. 빈부의 차이는 갈수록 커져 이 시기에 부를 획득하는

방식은 투자가 주를 이루었고 여전히 부패행위의 빈도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이 시기 고소득층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구조적으로 교육수준이 비교적 높고, 시장화에 강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산요소에 있어 우세를 차지하였다. 이들은 주로 주식투자자, 증권, 통신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며 정부 당국의 세력을 등에 업은 자들이었다.

4. 지식과 기술의 시장화(제 4단계)

점진적인 경제개혁이후 권력의 부패와 부당한 경쟁으로 부를 축적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와 동시에 첨단과학기술을 가지고 있는 엘리트들이 부를 축적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지식스타일 고소득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들은 시장경제체제의 틀을 만들고 시장경쟁의 법규를 완성해 나갔다. 또한 각 분야의 전문기술 인재를 통해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여 광활한 시장경제의 무대를 창조하고 그들의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부를 획득했다.

전문지식 인재들은 건전한 시장경제체제와 지식에 근거해 창신(創新)과 창조성으로 비교적 높은 부를 얻었다. 베이징의 중관촌(中關村)은 고도의 과학기술의 집합체로서 고급과학기술 인재들을 축적하고 있다(李 拓 2002:239). 이들의 대부분은 주로 청년들로 경쟁의식이 강하고 진취적인 의식과 시장능력이 강해 지식을 이용하여 부를 축적하고 있으며 일부의 인재는 백만장자 혹은 천만장자가 되었다.

그리고 대량의 네트워크와 소프트웨어 개발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전문기술과 지식을 이용하여 사회적 부를 빠른 속도로 획득하고 있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다. 고급관리자의 경우 몇 십만에서 심지어 몇 백만 위안의 연봉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고액 연봉을 받는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許海峰 2003:197).

한편 지식스타일의 고소득층은 주로 시장경쟁에 잘 적응하고 전문적인 지식수준이 높고 경쟁력이 강할 뿐만 아니라 사회관계가 친밀하다.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에 잘 적응하는 사람들이다. 현재 중국의 시장경제시스템은 공급자중심의 경제에서 수요자중심의 시장경제로 변하고 있고 기업개혁으로 많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5. 국유자산의 사영화(제 5단계)

현재 형성되고 있는 국유자산의 퇴출과 민영자본의 진입 과정에서 대량의 국유자산이 평가·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사람들은 채무를 다른 물건이나 노동력으로 상환하지 않고 필요한 소량의 돈으로 기업을 인수하였다. 그 후 기업내 직원을 감원시킴으로써 급속히 이익의 증가를 가져왔고, 기업경영자의 개인자산 역시 높아졌다(許海峰 2003:198).

한편 부정부패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 국유기업개혁 과정에서 공적인 것을 사적인 것으로 취함으로써 국유자산을 대량으로 유실시켰다. 추측에 의하면 1990년대 이후 국유자산은 매년 800억 위안에서 1,000억 위안 정도 유실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유실된 국유자산으로 일부 사람들은 백만 부호가 되었으며 그들의 불법적인 수단은 탈세, 밀매 등의 각종 수

단으로 거액의 부를 축적했다(李 拓 2002:238). 이러한 부패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중국 내에서 부정부패에 대한 강경한 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판시와 연계되어 있는 불법 행위들은 여전히 중국 정부가 해결해야할 큰 과제로 남아있다.

점진적인 발전으로 중국의 고소득층은 성원들과 부를 축적하는 방법들은 더욱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젊은 인재들이 그들의 기술력을 이용해 “과학기술은 제 1의 생산력”이라는 슬로건 아래 기술을 발달시킴으로 그들의 기술과 부를 축적해가고 있다. 이 시기 고소득층의 성원 구성은 개혁·개방 초기에 비해 시장 경쟁력이 월등한 기업 고급 경영자들이다. 이들의 특징은 직업 전문 지식의 수준이 높고, 경쟁력이 강하고, 사회관계가 좋으며 시장 경쟁에서 우세한 사람들이다.

제 5장 고소득층의 주요 구성

제 1절 사영기업주계층³⁶⁾

1. 사영기업주계층의 출현

중공 11기 3중전회 이후 개혁·개방정책을 실행함으로 사영기업이 발전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영기업의 발전은 매우 점진적이며 단계적이다. 1956년 사회주의 개조가 빠르게 완성된 후 중국 대륙 내에서 자본주의 경제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³⁷⁾ 그러나 고용노동발생의 사회경제조건이 여전히 남아 있어 1956년 하반기에 자유시장이 활기를 띄면서 개체공상호가 급속히 발전했다. 하지만 1957년 ‘좌파’의 사상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고도로 집중된 유일한 계획경제체제와 국유, 집체소유 등 단일화된 공유제 경제체도가 형성되고 강화되었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상부구조가 발전됨에 따라 호적제, 소유제, 단위제 등 사회네트워크와 행정, 법률, 경제의 관리수단을 통하여 경직되고 정지된 사회구조 속에서 전체 국민을 엄격히 규제하였다.

그러나 대약진운동의 실패와 문화대혁명으로 말미암아 마오쩌둥 정권이 물러나고 1978년 3월 국무원이 도시지역에서 개체호라 불리는 소규모 개

36) 이 부분은 陸學藝(2002)에 많이 의존하였음

37) 중국에서 사영기업은 1950년대 자본주의 상공업에 대한 사회주의적 개조의 과정을 거쳐 소멸한 뒤 약 25년간 자취를 감추었다가, 1980년대 초 경제개혁의 과정에서 재차 출현하여 1980년대 말이 되면서 이미 중국의 경제구조 속에 무시할 수 없는 경제 역량으로 성장하였다. 이 경제적 힘을 바탕으로 사영기업은 1987~1988년에 중국 당국의 합법적인 사후 승인을 받고, 특히 1992년 이후에는 ‘새로운 개혁·개방의 가속화’ 추세 속에서 맹렬한 기세로 발전하고 있다.

인 사업가의 출현을 허용했다. 이는 1956년 모든 기업을 국유화한 이후 처음으로 사적인 경영을 용인한 것이다(王長富 1997:3). 개혁·개방 이후 도시 개체노동자 수가 1978년 15만 명, 1981~1983년에는 105.9만 명에서 208.6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경영규모도 확대되었다. 이러한 개혁·개방의 과정 속에서 몇몇의 경영자들이 점차 자본을 축적하고 자신의 경영능력과 기술을 이용해 시장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함으로 자산의 규모를 확대해 나갔다.

2. 사영기업주체층의 형성 과정 및 발전 메커니즘

1) 형성 과정

사영경제는 개혁·개방의 물결 속에서 자발적으로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사영경제의 형성 과정을 크게 세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이나 가족이 축적하고 모은 자금이 개인의 자본으로 전환되면서 사영기업의 규모가 점차 확대되어 사영경제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개인수입의 자본화를 통하여 형성 발전된 사영기업 대부분이 농촌의 ‘전업호’와 향진 개체공상호였다. 둘째, 국유기업의 사영화이다. 청부, 책임제 등의 방식을 통해 국유기업이 점차적으로 사영화 되었다. 초기에는 향진기업이 사영화 되다가 점차 중·소형 국유기업이나 대형 향진집체기업이 사영화 되기 시작했다. 셋째, 인력자본의 기업화이다. 중국에서 일어난 민영과학기술기업 형성의 과정을 시정함으로 민영과학기술기업은 비정부 경영으로 과학기술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형 기업이 설립되었고 이러한 민영과학기술기업의 소유제 구조는 주식제, 주식합작제, 국유민영, 개체사영이 각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2) 발전 메커니즘

향진기업발전 이후 출현한 사영기업은 발전 속도가 빠르고 자본의 축적을 또한 높다. 통계에 따르면 1987년 말 전국 사영기업수는 22.5만개, 노동자수는 360.7만 명에 달했다. 1988년 헌법수정으로 사영경제의 존재와 발전을 정식으로 허용함으로써 사영경제의 발전이 더욱 가속화 되었다.

<표 5-1> 각 소유제기업의 연평균 증가율(1990~1999년)

(단위: %)

분 류	국유기업	집체기업	외국투자기업	사영기업
기업 수	4.07	0.71	26.62	35.50
등록 자금총액	15.46	10.30	34.11	68.29
기업평균등록자금	10.94	11.09	5.91	24.22

출처: 陸學藝(2002:213)

사영기업은 시장경제의 요소로 직접적인 이윤을 얻고 업무효율성이 높으며 시장 경쟁에 참여하여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이러한 사영기업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면서 중공업 위주의 산업이 점차 경공업과 제 3차 산업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3. 사영기업주체층의 특징 및 현황

개혁·개방 이후 사영경제는 이미 중국사회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하'에서 '지상'경제로의 전환을 가져왔다. 2000년도에 이르러 전국에 등록된 사영기업주는 395.35만 명, 자본은 13,307.69억 위안, 노동자는 2,011.15만 명에 이른다.

<표 5-2> 중국 사영기업 발전(1989~2000년)

(단위: 만호, 만 명, 억 위안, %)

분류 \ 년도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사영기업수	9.1	9.8	10.8	14.0	23.8	43.2	65.5	81.9	96.1	120.1	150.9	176.2
증가율		8.4	9.9	29.5	70.4	81.7	51.4	25.2	17.3	25.0	25.6	16.8
사영기업주수	21.0	22.4	24.1	30.3	51.4	88.9	134.0	170.5	204.2	263.8	322.4	395.4
증가율		6.7	7.6	25.7	69.6	73.0	50.7	27.2	19.8	29.2	22.2	21.5
기업직원수	142.6	147.8	159.8	201.5	321.3	559.4	822.0	1000.7	145.0	1445.3	1649.8	2011.2
증가율		3.7	8.1	26.1	59.5	74.0	46.9	21.7	14.4	26.2	17.6	18.4
기업등록자금	84.5	95.0	123.0	221.0	681.0	1448.0	2622.0	3752.0	5140.0	7198.0	10287.0	13306.9
증가율		13.1	29.5	79.7	208.1	112.6	81.1	43.1	37.0	40.0	42.9	29.4
기업생산총액	97.0	122.0	147.0	205.0	422.0	1140.0	2295.0	3227.0	3923.0	5853.0	7686.0	10739.8
증가율		23.2	17.1	32.3	81.9	122.0	75.4	32.5	20.6	53.2	35.4	38.7
공상세수총액	1.1	2.0	3.4	4.6	10.5	17.5	35.6	60.2	90.5	163.0	255.0	414.4
증가율		78.6	69.0	34.6	129.0	67.5	103.1	69.2	50.2	80.1	56.4	62.5

출처: 陸學藝(2002:215)

1) 특징

사영기업주체층의 특징은 첫째, 생산 필수품의 개인 소유이다. 사영기업주의 자산은 기업주 개인의 소유로서 사영기업주는 국가로부터 기업의 자산점유권, 사용권, 수익권과 처리권 등을 법률로 보호받고 있다. 조사에 의하면 사영기업의 평균 자금은 150만 위안, 그 중 1,000만 위안을 초과하는 사영기업은 총수의 11.0%이며, 억 위안을 넘는 기업은 1.46%를 차지한다. 둘째, 사영기업 내부에서 노동력의 매매를 통해 노동력과 생산 필수품의 결합을 간접적으로 실현한다. 기업주는 경영활동을 지배하고 고용노동력의 노동사용권을 가진다. 기업의 평균 고용 노동자수는 11.38명이고 그 중 100~500명을 고용한 기업은 3.84만개, 500~1,000명을 고용한 기업은 2,084개, 1,000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은 259개이다. 셋째, 기업의 소유권, 경영권과 관리권이 주요 투자자에게 집중되어 있다. 넷째, 사영기업의 순이익의 출처와 소유권의 불일치이다. 사영기업의 순이익은 고용직원과

기업주가 공동으로 창출하는 것이지만, 기업주가 독자적으로 점유하고 사용한다. 조사에 의하면 1,000만 위안 정도의 개인 소유자산을 가진 기업주가 17.9%이며 억 위안 이상을 소유한 기업주는 1.1%로 나타났다. 다섯째, 아직 자각적인 정치적 요구를 하지 않고 있다. 사영경제가 합법화된 이후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된 모습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위상 변화에 조용할 수 있는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얻기 위한 행위들이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청원'과 '요구'에 그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표출하고 '경제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문제를 관철시키고자 한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그들의 경제적 이해관계의 확보를 위한 것이며 경제적 지위에 걸맞는 사회적 지위와 정치적 지위의 안정을 얻고자 하는 것이지 결코 정치적 자유화나 민주화의 의제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여섯째, 사영기업주계층의 계층의식이다. 사영기업주의 관심은 사회계층구조에서 정치 지위와 자신의 전망과 운명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들의 합법적인 이윤과 특별히 그들의 사유재산의 안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2) 현황

첫째, 사영기업자 및 기업수는 1993~2002년 전국에 등록된 사영기업주(사영기업투자자)는 51.38만 명에서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2002년에는 622.82만 명으로 1993년에 비해 11.12배 증가했다. 2002년말 전국에 등록된 사영기업인수는 2001년 같은 시기에 비해 161.98만명 증가했고, 35.15%의 성장률을 보인다. 이것은 1998년말 등록된 263.83만명에 비해 358.99만명 증가한 것으로 이는 136.07%의 성장률을 보이는 것이다. 다른 기업에 비해 사영기업이 빠른 성장률을 보여 1993~2002년 전국에 등록된 사영기업은 23.79만개에서 243.53만개로 9.24배 증가했다. 같은 시기 국유

기업은 195.17만에서 감소하여 117.25만, 집계기업은 515.65만에서 188.59만개로 감소했다.

둘째, 사영기업의 등록자본은 다음과 같다. 사영기업의 등록자본은 평균적으로 100만 위안을 초과하고 있으며 1993~2002년 전국사영기업의 등록자본 총액은 680.52억 위안에서 24,756.22억 위안으로 35.38배 증가하였다. 2002년말 전국사영기업의 등록자본은 2001년 동일 시기에 비해 6543.99억 위안 증가하여 35.93%의 성장률을 보였다(張厚義 2004:312).

<표 5-3> 전국 사영기업 발전 현황(1989~2000년)

	업체수(만개)	고용인원(만명)	자본금 규모(億元)	생산 및 매출액(億元)
1989	9.06	164.01	84.48	136.21
1993	23.79	372.63	680.52	730.98
1997	96.07	1,349.26	5,140.13	7,019.19
2000	176.18	2,406.5	13,307.69	20,623.84

출처 : <工商時報>(2001/03/30)

셋째, 경제와 사회발전의 공헌이다. 사영기업은 공업생산액을 창조하고 소비품의 소매를 실현함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1993~2002년 전국사영기업이 실현한 공업생산액은 421.74억 위안에서 15,338.0억 위안으로 35.37배 성장하였다. 2002년 말 전국사영기업이 실현한 공업생산액은 2001년 같은 시기에 비해 3,021.0억 위안으로 24.53% 증가하였다. 사회소비품의 소매액은 190.47억 위안에서 7,929.44억 위안으로 40.63배 증가한 것이다. 사영기업이 납부한 공상(工商)세금도 빠르게 증가했다. 1993~2002년 전국사영기업이 납부한 공상세금은 10.46억 위안에서 945.62억 위안으로 89.4배 증가했다. 이는 2001년과 비교해 284.68억 위안 증가한 것으로

43.07% 성장한 것이다. 사영기업의 발전은 청년 실업과 하강의 사회 문제를 안고 있는 중국 사회에 일자리를 제공했다. 1993~2002년 전국사영기업이 흡수한 직원은 372.63만 명에서 8.15배 증가한 3,409.3만 명을 고용했다. 같은 시기 전국의 국유단위 직원수는 10,920만 명에서 66.93% 감소한 7,163만 명이였다(張厚義 2004:313-314).

<표 5-4> 사회경제발전에 대한 사영기업주 계층의 공헌

(단위: 억 위안, 만 명)

분류 \ 년도	1993	1995	1997	1998	1999	2001	2002
공업생산액	421.7	2295.2	3900.5	5853.3	7686.0	12317.0	15338.0
소비품소매액	190.5	1006.4	1854.7	3059.3	4191.4	6245.0	7929.4
공상세수	10.5	35.6	90.5	163.0	255.0	660.9	945.6
고용직원	372.6	956.0	1349.3	1709.1	2021.6	2713.9	3409.3

출처: 張厚義(2004:314)

<표5-4>에서 보듯이 사영경제의 발달로 사영기업주계층은 공업생산영역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실업과 세수문제를 해결하는데 공헌한 바가 크다. 또한 사영경제는 중국 경제 발전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제 2절 전문경영자계층³⁸⁾

1. 전문경영자계층의 출현

경영자계층은 대·중형 기업에서 기업주 신분이 아닌 고·중위급 관리자를 의미한다. 이 계층은 국가·사회관리자(간부)계층과 사영기업주계층과의 경계가 아직 명백하지 않다. 그리고 계층내부에 있는 상이한 근원의 성원들이 갖고 있는 이질적인 사회·정치적 태도와 이윤추구와 같은 동일한 분야에서조차도 명백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계층의 사회근원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은 첫째, 국유와 집체기업의 간부이다. 현대 기업제도가 발전함에 따라 기업의 간부들이 점차 행정 간부 계열에서 이탈하여 직업경영인이 되었다. 둘째, 비교적 큰 사영기업 혹은 고급 과학기술 산업영역의 민영기업주가 직업경영인을 초빙하여 그들이 기업을 경영관리 하도록 직무를 맡기는 경우이다. 셋째, ‘삼자(三資)’ 기업의 중·고급관리인이다.

경영자계층은 시장화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며 새로운 제도의 창시자로 선진생산력과 현대 경제체제의 발전방향을 대표한다. 이 계층은 대량의 생산자원을 지배하고 비교적 높은 교육 수준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정치·사회적 지위가 높아 ‘사장(老總)’이라고 부른다. 많은 대·중형기업이 국유에 속해 재산권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사실상 경영인 계층이 기업의 생산필수품과 경제자원을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경영인 계층이 현재의 사회계층 안에서 주도적인 계층의 하나임을 결정짓는 것이다. 정치·사회·경제영역에서 그들의 영향력은 끊임없이 확대되

38) 이 부분은 주로 朱光磊(1998)에 많이 의존하였음

고 있다. 또한 분배의 모호성으로 인해 ‘상여금’, ‘커미션’이 성행하여 경영자와 생산자의 수입차이가 급속히 확대되었다. 일부 전문경영자의 소득은 생산자와 비교해 십 여배에서 몇 십 배 높으며 극소수의 경영자의 연봉은 100만 위안에 달하기도 한다(武建忠 2002:209). 경영자계층은 사회계층구조에서 약 1.5%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간의 분포가 매우 불균등하며 대다수가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특별히 경제발달 도시에 그 분포가 매우 높다.

2. 특징

1995년 조사 보고에 의하면 중국 기업경영자 집단의 기본 현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 면에서 보면 2,674명의 조사 대상 중 40세 이하는 8.0%, 41~50세는 35.7%, 50세 이상은 56.3%로 기업경영자의 평균 연령은 50.9세로 나타났다. 1993년 중국기업가 조사통계와 비교해 보면, 평균 연령이 1993년 48.5세 비해 2.4세 많아졌고 1985년의 44.4세에 비해 6.5세 많아진 것이다. 연령에서 볼 때 40세 이하는 1993년의 14.7%에 비해 6.7% 감소했고, 41~50세는 1993년 44.0%와 비교해 8.3% 감소했으며 51세 이상은 1993년 41.35% 비해 15배 증가했다. 기업개혁에서 기업경영자의 연령이 전체적으로 높아진 이유는 국유기업 개혁의 속도를 늦췄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0년대 중·후반에 들어와서 국유기업 개혁이 보다 활성화 되면서 전문적인 경영지식을 갖춘 인재들이 채용되면서 경영자의 연령대가 낮아지기 시작했다.³⁹⁾

39) 1994년 제 14기 5중전회에서 “큰 것은 틀어쥐고 작은 것은 풀어놓는” 방침이 채택되었다. 이 방침은 국가의 역량을 대·중형 국유기업에 집중하여 이들을 누적된 부실에서 해방시키는 데에 중점을 두는 한편 중·소형 국유기업에 대해서는 합병, 매각, 임대경영, 파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다 자유롭게 개혁하여 활성화시킨다는 것이다. 이어 1997년 제 15기 전국 당 대회는 “공유가 중심이 된다”는 것의 해석을 종래 공유부문이 양적으로 우위를 차지한다는 것에서 공유부문이

둘째,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1997년 중국 기업가 조사 통계에 의하면 <표 5-5>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경영자의 교육정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각양의 소유제기업 경영자중, 국유기업 경영자내의 대졸이상 학력의 소유자가 비교적 많이 나타났다.

<표 5-5> 기업경영자 교육수준 변화(1993~1996년)

(단위: %)

	1993	1995	1996
대학이상	34	42	44
전문대	35	38	39
중·고등	23	18	10
중·고등 이하	8	2	7

출처: 朱光磊(1998:411)

근래에 기업가들은 자신들의 자금을 이용해 4학년제 대학에 편입한다든지, 야간대학원에 다니는 등 그들의 학력 수준을 높이고 있다.

셋째, 경영자계층의 신분은 비교적 단일하다. 기업경영자들의 이전의 직업은 기업 하부 관리자, 당정 간부와 기업기술자등 이었다. 기업경영자계층에서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42.9%, 3.0.2%, 18.6%로 모두 91.7%로 기업경영자계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중, 국유기업과 집체기업경영자들이 이전에 종사하던 직업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표 5-6>과 같다.

핵심부문을 통제하고 경제를 주도한다는 것으로 전환했다. 1998년 4월 주룽지총리가 취임하면서 국유기업 개혁, 금융개혁, 정부기구 개혁을 3대 과제로 제시하고 3년 이내에 기본적으로 내·중형 국유기업의 적자를 해결하고 현대기업제도를 구축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허홍호 외 2000:160-161).

<표 5-6> 기업경영자의 이전에 종사했던 직업

(단위: %)

	국유기업	집체기업
당정간부	31.8	25.0
기업하부경영자	41.9	44.0
기업기술자	20.3	14.9
일반 노동자	0.5	3.9
학교 교수	0.2	1.5
과학연구원	3.0	0.9
농민	-	7.1
기타	2.3	2.7

출처: 朱光磊(1998:412)

기업경영자들의 초기 직업 조사를 통해 그들의 대다수가 기업경영자가 되기 이전에 기업내 하부조직의 경험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하부조직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실질적인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기업경영자로서 그들의 기량을 십분 발휘할 수 있다.

넷째, 정치적으로 당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

<표 5-7> 기업경영자의 정치면모

(단위: %)

	총체	국유	성진	향진	외자독립	외자합자	민영	주식	기타
중공당원	96.5	98.9	94.5	90.6	41.2	85.5	60.0	94.2	97.6
무당파	2.8	0.8	4.7	7.9	47.1	11.9	33.3	4.7	2.4
민주당파	0.5	0.3	0.8	1.5	0.0	1.3	6.7	1.1	0.0
기타	0.2	0.0	0.0	0.0	11.7	1.3	0.0	0.0	0.0

출처: 朱光磊(1998:413)

<표 5-7>를 통해 각종 기업경영자중 당원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것을 볼 수 있고 이러한 현상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간부인사제도와 크게 연관되어 있다.

다섯째, 업무능력이다. 조사보고에 의하면 2,674명의 조사자중 “자신이 기업의 지도자로서의 업무를 감당할 수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58.2%, “자신이 기업의 지도자로서의 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2.8%에 불과했다. “규모가 매우 크거나 대량의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14.0%, “기업의 지도자로서 업무에 국한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24.9%로 조사결과가 나타났다(中華工商時報 1996/04/24; 朱光磊 1998:413). 기업가의 대부분은 자기 자신이 기업이 업무를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매우 어려운 업무도 감당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이상 살펴보듯이 국유기업과 집체기업의 경영자는 기업의 최고 결정자가 되기 전에 기업 내 하층 생산이나 관리에 종사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

고, 이러한 경험은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 귀한 자산이 되었다.

3. 연봉제

중국 기업가조사통계에 따르면 1995년 중국기업경영자의 1인당 월평균 소득 조사결과 월소득 300위안 이하가 15.4%, 301~500위안은 12.5%, 501~700위안은 20.4%, 701~1,000위안은 31.2%, 1,000위안 이상은 20.5%로 나타났다. 1995년 조사 결과와 1993년 중국 기업가조사통계를 비교해 보면 500위안 이하의 수입을 받는 사람은 53.4% 감소하였고, 700위안 이상의 수입을 받는 사람은 44.5% 증가했다(中華工商時報 1996/04/24; 朱光磊 1998:415).

위의 통계결과를 보면, 일부 국유기업 경영자의 월급이 너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반면에 국유기업 경영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의 우세로 은폐된 수입이 적지 않다. 심지어 돈으로 계산 할 수 없는 특수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기업경영자는 자신의 보편적인 경제지위의 만족도가 27.4%로 그리 높지 않게 나타났다. 정치지위에 대해서는 48.2%, 사회적 명예가치에 대해서는 45%의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연봉제 실시에 관해서는 기업경영자의 60.4%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중국 내부에서 월급제 대신 연봉제를 실시하는 기업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면서 경영자계층의 소득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연봉제의 실시는 기업경영자의 책임감과 위기의식을 강화시켜 기업 이익의 적극성을 유발시켰다. 그러나 연봉제의 실시는 기업경영자와 직공간의 임금 소득을 크게

벌어지게 하였고, 일반직공과의 소득차이가 몇 배에서 크게는 몇 십 배까지 차이가 난다. 일부 하강한 직원의 월급이 300위안 일 때 기업 경영자는 1,000위안 정도의 월급을 받아 일반 직원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1998년 연봉제가 실시되지 않았을 때 국유기업경영자의 연소득은 직공 평균 임금의 1.5배였다. 하지만 연봉제 실시 이후 국유기업 연봉자의 연소득은 일반 직공의 평균 임금의 3~5배에 이르며 개별적으로는 최고 10~20배에 달한다. 국유상장회사의 경영자 소득은 기업경제 이익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어떤 기업은 적자가 나더라도 경영자의 연봉을 원래대로 지급한다. 1998년 전국 국유기업 직공 연평균 임금은 7,644위안 이었다. 직공의 임금이 최고 높은 지역은 상하이로 13,332위안이고, 임금이 최저인 지역은 하이난(海南)과 지양시(江西)성으로 각각 5,131위안과 5,283위안이다(武建忠 2002:211). 이러한 보수차이는 최근 보고에서 확실히 드러난다. 한 조사에 따르면 '기업경영자계층'의 연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 경영자계층의 연평균 소득은 56,310위안에 달했고, 증권투자분석사가 53,657위안으로 2위를 차지했다.⁴⁰⁾

국유기업개혁 이전에는 국유기업의 경영자에서 미숙련공에 이르는 모든 종업원은 평생고용의 조건하에서 각급 정부관리에 상응하는 직급을 부여받고 직급에 따른 격차가 미미한 고정임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경제발전과 국유기업개혁으로 말미암아 기업경영자와 노동자간의 임금 격차가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에 조용하여 기업 경영자의 자질 역시 전문화·지식화가 되고 있다.

40) <http://www.dzwww.com/caijing/guanzhu/200212310944.htm>

제 3절 전문기술자계층

1. 전문기술자계층의 특징

전문기술자계층은 각종 경제성분의 기구(국가기관, 당 조직,全民기사업 사업단위, 집체기업사업단위와 각종 비공유제경제기업 포함)에서 각종 전문적인 업무와 기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대다수는 중·고등 전문지식 및 전문직업기술을 훈련받아 현대화 사회의 재생산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전문기술을 갖추고 있다. 전문기술자들은 현대 공업사회의 중등 계층의 주요간부로서 선진생산력의 대표자 중의 하나이며 선진문화의 대표자 중의 하나이다. 더욱이 그들은 사회가치체계 및 의식형태의 창신자와 전파자로서 사회안정을 유지하고 사회진보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개혁·개방이후 중국 전문기술자계층은 전통적인 지식인에서 현대 지식인으로 성원이 점차 전환되었다. 즉 전통적 인문지식인의 주요 구성에서 현대 전문기능성의 지식인들이 주요구성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전문기술자계층이 시장경제발전 안에서 비교적 우세한 지위를 유지하는데 유리하다. 그리고 조직자원과 경제자원을 장악한 국가·사회관리자계층, 경영인계층, 사영기업주계층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중국사회에서 전문기술자계층은 과학기술발전과 시장경제이념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작용을 한다. 중국의 계층구조와 사회중간층에 있는 전문기술자들의 비중은 비교적 낮으며 이들은 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사회주의 현대화는 진행에 있어 교육, 과학기술과 사회사업의 발전을 추진함

으로써 전문기술자계층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2. 전문기술자계층의 현황

현재 전문기술자계층이 사회계층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5.1%지만 도시·농촌사이의 차이는 매우 크고 경제발전 수준이 서로 다른 지역과의 차이도 크다. 경제발전 지역의 대·중형 도시(城市)에서 전문기술자계층은 10~20%를 차지하는 반면 도시·농촌을 합하면 그 비율은 다시 1.5~3% 정도가 된다. 전문기술자계층의 현황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5-8> 국유기사업 단위 산업별 전문기술직

(단위: 만 명)

산업분류	1990년	1995년	2000년	2001년	2002년
전국총계	1080.9	1913.4	2165.1	2169.8	2186.0
농림목어업	77.2	101.7	111.6	110.3	107.2
공업	290.6	351.2	298.8	272.9	254.9
건축업	50.4	71.2	55.7	55.6	56.7
지질감사업·수리관리업	18	15.7	34.9	36.3	35.8
교통운수·창고업 및 우전통신업	41.5	54.9	72.1	72.1	75.1
도소매업·무역,음식업	23.2	27.5	18.6	16.3	15.6
부동산업, 사회서비스(服務)업	12.5	22.1	36.9	40.6	40.0
위생체육·사회복지업	214.2	246.1	280.5	286.6	289.8
교육문화예술광고영화TV방송	231.0	935.3	1157.1	1188.1	1209.5
과학연구,종합기술서비스업	67.8	69.8	72	69.4	67.1
금융보험업	3.4	8.1	9.2	8.8	8.8
기타 산업	3.3	9.8	17.7	12.8	25.5

자료: 中國統計摘要(2003:180); 이중희(2004)에서 재인용

<표 5-8>에서 보듯이 1990년에서 2002년 사이 국유기사업 단위에서 산업별로 증가비율에 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문기술직은 생산 자료를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생산·경영활동에 대한 건의권·발언권을 가진 정신통동자이다(陸學藝 2002; 이중희 2004:9). 전문기능성을 소유한 전문기술자계층은 시장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비교적 우세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들이 가진 기술적 자원을 이용하여 시장경제체제에서 큰 혜택을 얻었다.

제 6장 결론

지난 20여 년간 추진되어온 개혁·개방정책의 결과 중국은 경제성장에 있어 놀라운 발전을 거두고 있다. 또한 개혁·개방과 함께 비국유경제와 사영경제 영역이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으로써 중국 사회는 다양한 계층으로의 분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발전의 영향으로 소득격차에 의한 계층분화와 고소득층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중국의 변화 속에서 고소득층의 현황과 형성 배경을 분석하고 고소득층의 주요 구성과 부의 축적 경로 등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를 몇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 중국 고소득층의 출현은 여러 가지 요소의 작용으로 인한 것이다. 특별히 비국유경제의 발달과 소유제의 다양화는 중국내 고소득층이 형성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경제정책에 있어 비국유경제의 발달로 인한 다양한 소유제의 인정은 중국 사회 변화의 핵심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비국유경제의 발달은 중국 경제 발달의 촉진제가 된 반면 비국유기업과 공유제 간의 임금격차를 심화시키는 현상을 가져왔다. 이와 같은 임금격차는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소득격차를 조성하였고 고소득층이 등장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경제개혁의 이론적 배경인 선부론은 개인간, 집단간 소득격차를 용인하는 보호막 역할을 했다. 게다가 불완전한 세수 정책과 탈세 및 불법적 행위와 개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은 중국내 고소득층이 형성되고 발전하는 현상을 가져왔다.

둘째, 현재 중국내 고소득층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다. 고소득층의 인원과 소유한 재부의 가변성으로 인해 정확하게 고소득층의 규모를 파악하

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전문가, 정부 기관, 도시별의 기준이 각각 달라고소득층이 범위를 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고소득층의 규모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 경제성장으로 인한 소득격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현재 중국 사회는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현저히 나타나고 있다. 현재 최저층의 20%가 전체 수입의 4%를 차지하는 반면, 최고층의 20%는 전체 수입의 50%가 넘는 자산을 차지하고 있다. 북경시의 경우, 백만 부호가 150~2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중국 내의 극소수 고소득층은 전체인구의 5%인 6,500만 명으로 한국의 인구보다도 많다.

셋째,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 속에서 중국의 고소득층은 구성원의 요소가 높아지고 있다. 초기 중국의 고소득층은 사회 주변부 집단의 사람들이었으나 시장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점차 사회 중심부 집단의 성원들로 바뀌고 있다. 또한 교육수준에 있어서도 시장경쟁에서 충분히 자신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지식인층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넷째, 점진적인 경제정책에 발맞춰 중국 고소득층의 부의 축적과정 또한 점진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 1980년대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 체제의 결함을 틈타거나 여러 가지 반합법적·불법적인 방법으로 자산의 규모를 늘렸다. 하지만, 시장화가 정착되어 가면서 지식과 전문적인 기술을 이용하여 부를 축적하는 엘리트들이 등장했다. 이들은 건전한 시장경제체제와 지식에 근거해 시장경쟁의 틀을 마련하고 있다.

다섯째, 오늘날 중국 고소득층은 사회상층에 속하는 계층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중국 사회 과학 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 내의 계층을 10

계층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 가운데 상층에 속하는 계층은 사영기업주, 전문경영인, 전문기술자계층 등이다. 이러한 계층의 분류를 통해 중국 사회 내 고소득층의 위치와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위의 결론과 관련해 고소득층의 향후 전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고소득계층은 중국 사회 안에서 시장경제가 정착되고 공고화되는 과정에 있어 계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개혁·개방의 최대 수혜자로 국가와 긴밀한 관계망을 통해 자신들의 경제적 부의 축적과 사회적·정치적 지위의 안정 속에서 국가와의 공생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진다.

둘째, 소수의 고소득층과의 심각한 소득격차는 다수의 빈곤층으로 하여금 사회적 반감과 사회안정의 파괴라는 위험요소를 더욱 증대시킬 것이다. 중국의 지니계수는 이미 미국을 능가하고 있다. 그에 반해 사회보장제도는 너무나도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고소득층과의 공생 관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소득격차로 인한 사회 내부의 심각한 사회문제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셋째, 고소득층의 불법적인 경로를 통한 부의 획득이 점차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중국 정부는 불법경로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엄격하게 세수제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고소득층이 중국 사회에서 지금보다 더 안정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소득에 있어 투명성을 높이고, 정확한 세금납부와 합법적인

경로를 통한 부의 축적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부를 사회에 환원시킴으로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제고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내 문헌

<단행본>

- 고정식 외. 2000. 『현대중국경제』 교보문고
- 공제욱 · 박형준 외. 1989. 『사회계급론』 한길사
- 강준영 역. 1995. 『중국경제개론』 도서출판 지영사
- 강준영 · 전병곤 · 지세화. 2002. 『한권으로 이해하는 중국』 지영사
- 김동하. 1996. 『21세기 중국경제의 비전』 도서출판 아이비에스컨설팅그룹
- 김익수. 1999. 『중국투자론』 전영사
- 김원배 · 장경섭 · 김형국 편. 2003. 『중국의 오늘과 내일』 나남출판
- 김채윤 · 장경섭. 1996. 『변혁기사회주의와 계급 · 계층』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호성 역. 1994. 『중국 12억시장경제의 미래』 고려원
- 김홍명 역. 1982. 『마르크스주의자들』 한길사
- 금희연. 2000. 『중국인의 라이프스타일』 도서출판 그린
- 나카가네카츠지 저. 2001 『중국경제발전론』 나남출판
- 박인성 · 문순철 · 양광식 저. 2000. 『중국경제지리론』 한울 아카데미
- 송봉규 외 공저. 1998. 『중국학 개론』 동양문고
- 서석홍 외 공저. 1990. 『중국 사회주의 개혁의 진로: 사회주의 초급단계론
과 상품경제론』 풀빛
- 이종철 1998. 『중국 지역격차의 요인분석』, 「경제학연구」 제 46집 4호
- 알렉스 캘리니코스 저. 2000. 『마르크스의 사상』 북막스
- 양춘. 2000. 『한국사회 계층구조와 동학』 고려대학교출판부

- 유희문 외. 1999. 『중국체제 개혁의 정치경제』 21세기 북스
- 정구현 · 엄구호. 2000. 『중국의 시장과 기업』 나남출판
- 정천구 외 공저. 2002. 『중국정치산책』 세종출판사
- 조영남. 2000. 『중국 정치개혁과 전국인대』 나남출판
- 조준현. 2003. 『중국의 경제발전과 21세기 발전전략』 부산대학교 출판부
- 칼 R. 포퍼 저. 1997. 『열린사회와 그 적들 II』 믿음사
- 한중사회과학연구회. 2002. 『현대중국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 홍두승 · 구해근. 1993. 『계급이론과 계층론』 다산출판사
- 황위정. 1995. 『중국의 지하경제』 FIDI

<논문 및 연구보고서>

- 김도희. 2002. “계층분화와 빈부격차 그리고 사회통합의 위기” 서강대 동아연구소
- , 1998. “중국 신계층과 사회집단의 성격 및 사회적 역할에 관한 연구”, 『國際政治論叢』 제 38집 3호
- 김두섭. 1999. “중국의 국유기업과 사회계층분화” 중소기업 83권
- 김시중. 1999. “국유기업 개혁의 성격과 문제” 중국학회 편
- 김진균. 1993. “중국의 사회주의 초급단계론: 개혁과 시장경제론” 사회문화연구소
- 김춘림. 2003 “中國社會階層分化和構造的變遷” 啓明大 석사논문
- 박윤철. 2001. “중국 개혁개방후 국가와 사회의 재구조화: 사회조직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88호
- 박현주. 2002. “중국‘시민사회’연구” 한국외대 석사논문
- 이정희. 2000. “현 중국사회의 계층구조 분석” 계명대 석사논문

- 이종철. 1998. “중국 지역격차의 요인분석” 「경제학연구」 제 46집 제 4호
- 이중희. 2003. “중국 단위체제의 변화와 사회주의 복지체제의 위기” 「국제지역연구」
- , 2004. “중국에서의 중간계층의 성장과 구조변화” 미간행
- 이희욱. 1996. “중국의 계층분화와 ‘중국적 부유계층’등장의 성격과 의미”
김채윤·장경섭 편 서울대학교출판사
- , 1999. “중국의 사회적 불평등과 사회조직의 정치시스템 변용의 상관성” 중국학회편 『중국 체제개혁의 정치경제』 21세기북스.
- 유희문. 1999. “중국의 개혁-중국사영경제의 발전과 구조적 특징”, 현대중국연구 제 1집
- 서석홍. 2002. “중국의 소유제 개혁과 비국유기업의 발전” 「중국개혁-개방의 정치경제 1980-2000」
- , 1994. “1978년 以後의 中國 私營經濟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 , 1994. “중국의 사영경제: 발전, 실태 및 전망”, 《중국연구》 7호, 가을호
- 신철균. 1996. “상해의 주택문제를 통해서 본 도시 불평등” 부산외대 석사논문
- KIEP 북경사무소. 2000년 11월 15일. “중국의 개체 및 사영경제 발전 현황”, 『중국경제동향보고 2000-61』
- , 2001년 4월 17일. “최근 중국 사영기업의 발전 현황과 특징”, “중국경제동향보고 2001-17”, 2001년 4월 17일
- 하인식. 2004. “중국 노동시장의 변화와 단층구조” 부산대 박사논문
- 홍영림·설동훈·장경섭. 1993. “도시화와 도·농 관계” 장경섭 편 「현대중국사회의이해」 (사회문화연구소)

■ 中 文

<단행본>

- 唐忠新. 1998. 『貧富分化的社會學研究』 天津人民出版社
- 尚仲生. 2002. 『當代中國社會問題透視』 湖北人民出版社
- 楊宜勇. 1997. 『公平與效率:當代中國的收入分配問題』 今日中國出版社
- 閻志民. 2002. 『中國現階段階級階層研究』 中共中央黨校出版社
- 吳忠民. 2002. 『中國現階段貧富差距擴大問題分析』 《科學社會主義》. 2001. 中國人民大學. 復印報刊資料. 2期
- 李 拓. 2002. 『和諧與衝突:新時期中國階級階層結構問題研究』 中國財政經濟出版社
- 李 强. 2000. 『社會分層與貧富差別』 鷺江出版社.
- 李 炯. 2000. 『中國現階段個人收入差距分析』 山西經濟出版社
- 王長富 編. 1997. 『改革開放後的中國私營經濟』 北京: 人民大學出版社
- 陸學藝(編). 2002. 『當代中國社會階層研究報告』 社會科學文獻出版社
- 陸建華. 2002. 『中國社會問題報告』 石油工業出版社
- 張厚義·明立志. 1999. 『中國私營企業發展報告』 社會科學文獻出版社
- 朱光磊. 1998. 『當代中國社會各階層分析』 天津人民出版社
- 許海峰. 2003. 『你中產了嗎?』 經濟日報出版社

<논문 및 연구보고서>

- 江林. 2001. “一个在崛起的新興消費群體” 「經濟理論与經濟管理」
- 鄧小平. 1983. “在武昌, 深圳, 珠海 上海等地的談話要點” 「鄧小平文選」北

京人民出版社

- 林幼平. 2001. “20世紀 90年代 以來 中國消費分配問題研究綜述” 「經濟評論」
- 蕭文濤. 2001. “中國中間階層的現狀與未來發展” 「社會科學院」
- 湯在新. 2001. “我國私營企業主收入的來源和性質” 「南方研究」
- 孫秀. 2002. “調節富人” 「月刊 社會學」 中國人民大學
- 楊帆. 2001. “收入分配” 「投資與證券」
- 吳群勞. 2001. “關於現階段中國居民收入分化的判斷” 「學術研究」
- 陸益龍. 2001. “先富與共同富裕階層” 「江勞社會科學」
- 王學力. 2001. “個人收入差距的現況, 問題和對策” 「改革」
- 張厚義. 2004. “進入新時期的中國私營企業主階層” 「2004年: 中國社會形勢分析與預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 陳宗勝. 2001. “非法非正常收入對居民收入差別的影向及其經濟學理解” 「經濟研究」 南開大學經濟研究所
- 陳仕龍. 2001. “社會主義市場經濟條件下貧富差別與兩極分化關係研究” 「中共濟南市委黨校學報」
- 曾永泉. 2001. “私營企業主群體研究” 「南京社會科學」

<기타자료>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人民日報 <http://www.peopledaily.com.cn>

中國國家統計局 <http://www.stats.gov.cn>

中國統計年鑒

2000年全國個體私營經濟發展情況

<http://www.chinafeed.org.cn/economy/file/01032602.htm>